롯데판 고려장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제327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6일>

코스피 2013.29 (−16.47)

코스닥 747.74 (+6.48)

금리(국고채 3년) 1.48 (−0.01)

환율(원·달러) 1166.20 (−4.80)

그날 도장은 누가 찍었나

신동빈 L투자 대표이사 등기, 신격호 대표이사 직인 사용 승락 없인 무효
대표이사 동의없는 등기신청은 위법… 국내법상 문서위조죄로 처벌 가능

신동빈(61·**왼쪽사진**) 롯데그룹 회장은 외형상 한·일 롯데 모두를 장악했다. 롯데그룹 지배의 핵심고리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두곳 모두의 대표이사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의사결정이 곧 롯데그룹 전체의 입장이 되는 구조인데, 두 곳의 최고권좌를 신 회장이 차지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신 회장의 잇단 행보가 신격호(94·**오른쪽사진**) 총괄회장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시행된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도 '무단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L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 미묘하다.

6일 L투자회사 법인등기부를 보면 신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한 시점은 '골육상쟁(骨肉相爭)'이 극에 달한 7월 31일이다. 변경등기를 하려면 법무성 법무국에 이사회 의사록 등과 함께 '등기신청서'라는 공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 당시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법인직인을 찍어야 한다.

등기 신청일 당시 L투자회사 가운데 9곳의 대표이사는 신 총괄회장이 맡고 있었다. 당연히 해당 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 총괄회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정황 상 이들 등기신청서에 신 총괄회장이 자의로 기명하고 도장을 찍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등기가 신격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신동빈 회장이 관여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의 범죄라 해도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고, 신 회장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속인주의는 비록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다.

일본 법무성에 제출한 변경등기신청서가 유효하려면 이사회 결의안 등 등기원인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법무성에서 인정하는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날인을 해야 한다.

당시 경영권 다툼은 절정에 달하고 신 회장은 일본에, 신 총괄회장은 한국에 머물던 상태였다.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의 등기변경에 직인을 내줬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일 직접 도장을 찍을 수도 없었다. 정황 상 신 회장이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의 동의 없이 등기변경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주로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일본 내 누군가에게 L투자회사 관리를 부탁하며 회사 직인도 맡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 취임등기 같이 중요한 행위는 대표이사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례(2006도2016)에 따르면, 적법한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株式会社変更登記申請書

1．会社法人等番号

1．商　号

1．本　店

1．登記の事由　　監査役の変更
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
定款の定めがある旨

1．登記すべき事項

1．登録免許税　　金　　円

1．添付書類
臨時株主総会議事録　1通
就任承諾書　通
印鑑証明書　通
本人確認証明書　通
定款，株主総会議事録又は監査役の監査の範囲を会計に関するものに限定する旨の定款の定めがあることを証する書面　1通
辞任届　通
委任状　1通

上記のとおり登記の申請をします。

平成　年　月　日

申請人

代表取締役

連絡先の電話番号

法務局　支　局　御中
出張所

대표이사 등 법인변경등기시 일본 법무성에 제출해야하는 등기신청서. 아랫부분에 신청 당시 대표이사의 이름과 직인을 찍게 되어있다. /자료=일본법무성

설사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해도 이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 이는 '자격모용 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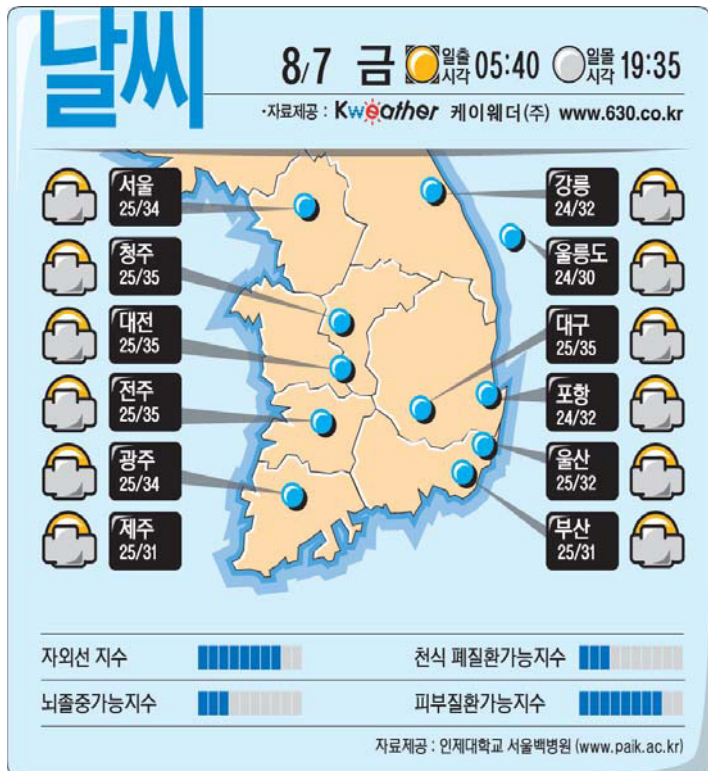
신 총괄회장이 7월31일 이전에 신동빈 회장이나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에게 L투자회사의 직인을 주면서 경영을 위임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대표이사 취임등기 신청은 당시 대표이사인 신 총괄회장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7월31일 등기신청 당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은 신 총괄회장이 9곳(L1·2·3·7·8·9·10·11·12), 츠쿠다 사장이 3곳(L4·5·6)을 각각 맡고 있었다.

신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다면 신 회장은 최소 9곳에서 문서위조를 한 셈이 된다.

한 중견 변호사는 "설사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L투자회사 대표이사에 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해도 별도의 동의없는 대표이사 취임 등기는 위법"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본인의 동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 등기무효 사유가 되고 신 회장은 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롯데 홍보실 관계자 등은 "아는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 관련기사 4,5면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경제·산업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인 6일 동반 **급락**했다.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3.50%(2000원) 내린 5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을 밑돌아 청구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2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주는 2분기 연속 '깜짝실적'을 시현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3분기 실적도 평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STX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매각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달 7월 유찰된 극동건설을 비롯해 다음주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인 동부건설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인수·합병(M&A)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ISA란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ETF 포함),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 반(反)롯데 정서가 확산되면서 롯데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롯데 계열사 시가총액은 2조2582억원이 증발했다. 특히 초반 '형제의 난' 이슈에 상승하던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마저도 상승 여력을 잃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 **KT**가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 유선사업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KT는 유선사업 시장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재규어 랜드로버**는 6일 재규어 XE를 공개하며 향후 5년간 50여종의 신차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레인지로버 신모델들을, 내년 상반기 올 뉴 XF와 F-PACE를 국내에 출시한다.

▲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갤럭시S6** 시리즈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갤럭시S6 엣지에 대해서만 가격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 **SK**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6일 대전 공군본부에서 창의 인재 양성과 지역내 창조경제 생태조성, ICT 기반 창조국방형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현대자동차**는 투싼이 독일 자동차 전문잡지 아우토빌트와 아우토자이퉁에서 실시한 비교평가에서 최고의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로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정치·사회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기업 내 자금 흐름까지 관계기관에서 엄밀히 살피도록 주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를 향해 '실업급여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은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았다.

▲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재계에 대해서 오는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시키는 선물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아세안 외교무대에서 추가 핵실험이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미국의 무력증강이 2차 한국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당정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총수 등이 해외 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유지에 도로를 내 사용했다면 소유주가 이의 제기시 이를 반환하고 그동안 주지 않은 **임차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연루 교사를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 서울시가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퇴임하는 민일영(60·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후임으로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6일 임명제청했다.

'광복 70주년, 독도의 하늘 우리가 지켜요' 6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KT(회장 황창규)가 대한민국 과학영재들(박찬민 군 외 5명)과 함께 독도의 하늘에 기상과 지형 관측을 위한 풍선을 띄우고 있다. /뉴시스

유통

▲ **민영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된 KT&G 사장 후임자로 낙하산 임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노조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6일 롯데홀딩스와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 **롯데** 계열사 4곳에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6일 송파구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을 제2롯데월드와 지하철 9호선, 대형 신축건물 8곳 등의 복합적인 공사 영향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제

▲ 일본의 핵무장 의도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 위령식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위령식 추도사에서 지난 19년간 매년 있어 왔던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프랑스의 인권단체가 **세월호** 추모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의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섰다.

▲ 동남아시아 관광 대국인 **태국**이 관광 산업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게 복수 비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중동의 대표 산유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하락으로 재정 압박이 커짐에 따라 연말까지 채권 발행으로 270억 달러(한화 약 31조6494억원)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엔 '실업급여 인상' 재계엔 '사면'

朴대통령 '4대 개혁' 강조
당근책으로 '희생' 촉구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공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계를 향해 '실업급여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노동개혁의 희생자들에 대한 구제책 성격이다. 창조경제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재계에는 재벌 총수 사면이라는 선물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담화에서 노동개혁을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은 4대 개혁과제로 꼽으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민간의 노동시장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자들의 질의를 최종적으로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목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선도적 효과가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대가는 기성세대의 희생이다. 이에대한 구제책으로 박 대통령은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안전망의 골자는 실업급여 금액 인상과 기간 연장이다. 지금 금액을 현행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 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린다는 설명이다. 부가적으로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서비스가 추가된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동생 박근령씨의 친일 발언이나 롯데그룹 사태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날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사에 기업인이 포함될 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사는 별개"라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면설이 도는 상황에서 롯데 사태의 악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인 사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썩 환영 분위기가 아님에도 약간의 부담을 갖고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자"라고 기업인 사면 이유를 설명해 최 회장 등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광복절 연휴 전날인 13일 특사안만을 다루기 위한 '원 포인트' 국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롯데 사태라는 돌발 악재를 만났던 재계는 숨을 죽이고 특사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담화에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솔선수범 없이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강조하기 위해 미래세대, 기성세대 운운하며 세대갈등만 조장했다"며 "적어도 갈등의 조정이나 노동자의 분노에 대한 이해와 해법 제시를 해야 옳다"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비둘기=평화' 아베는 알까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 희생자 위령식에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 세계 100개국을 대표하는 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5만5000명이 참석했다. 원폭 투하로 당시 히로시마 주민 약 35만명 중 약 14만명이 사망했고, 이 중 한국인이 2만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범국가인 일본의 현 아베정권은 자국이 겪은 전쟁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를 국민적 반대 속에서 강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핵 3원칙' 사라진 아베 원폭 추도사

日 '핵무장' 의도 노골화

일본의 핵무장 의도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년 위령식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위령식 추도사에서 지난 19년간 매년 있어왔던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1967년 이를 천명한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에게 노벨 평화상을 안겨줬다.

이날 극우언론인 산케이신문은 "헌법 9조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를 넘지 않는 실력의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 필요 최소 한도의 범위를 넘으면 핵무기의 보유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 해석이다"라는 기사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6일(현지시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투하 70주년 추도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앞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미국의 핵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아베 총리의 추도사로 논란의 불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청년고용 1명 당 세금 500만원 공제

중기 취업청년 특례 일몰 연장
종교인 과세는 결론 못 내려

세법 개정에 나선 당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종교인 과세는 정부의 도입 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신중론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를 마친 뒤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세수 증대라는 이번 세법 개정 목표와는 상반된다.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세수 증대라는 본래의 목표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과세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세입 확충을 위해 세율인상이나 세무조사를 하는건 쉬운 방법이지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500만원(중소·중견기업)에서 최소 250만원(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청년고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한 점을 고려해 당장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2017년까지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3만5000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청년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보강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과세 요건에서 청년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이다.

청년 근로자의 직접적인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를 70% 감면받는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일몰 기간은 3년 더 연장된다. /윤정원 기자 garden@

신동빈 'L투자' 점령 6월 말, 그 때 무슨일이

롯데家 '父子의 난', 사건의 재구성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신격호·신동주 반격 변수

신격호-신동빈 부자(父子)의 경영권 다툼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 27일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신동빈(61)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을 위한 일본행이 있으면서다. 하지만 이들 부자 간의 싸움은 이미 6월에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한·일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감춰진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아버지 신 회장으로부터 빼앗는 작업이 진행됐고 이를 뒤늦게 알고 막기 위한 과정에서 부자 간의 싸움이 격화된 것이다.

본지는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국내외 재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롯데가 '부자의 난'을 재구성 해봤다.

◆ 6월30일

신 회장은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당시 등기부 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 취임에는 두 가지 설이 제기된다. 첫째는 아버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동의 하에 투자회사를 관리하기로 했다는 설이다.

첫번째 설의 경우 갑작스런 신 총괄회장의 태도 변경은 롯데그룹이 주장하는 신 총괄회장 판단력 부재의 근거가 된다. 늙어서 기운이 쇠한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L투자회사 대표로 취임시킨 신 회장을 롯데 '탈취자'로 몰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 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이 신 총괄회장을 배제하고 L투자회사를 가지려는 작업을 했다는 설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형제의 난 자체가 신 회장이 아버지 몰래 L투자회사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작업을 하며 촉발됐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신 총괄회장이 차남에게 분노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신 총괄회장은 차남이 롯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7월 16일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회장 대표이사 취임을 결정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한·일 롯데의 통합 경영자가 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후 신 총괄회장은 이에 반대해 신 회장을 포함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와 한국 롯데 주요 임원을 해임한다는 지시서를 작성했다. 이 지시서는 일본롯데에 전달됐으며 한국롯데 임원 해임지시서에 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아버지의 해임지시서를 무시했다. 이유는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부재였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 무렵부터 적극적인 이사 설득에 나섰다.

◆ 7월 27일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2) 롯데홀딩스 전 부사장을 포함한 5명의 가족들을 대동해 일본 롯데홀딩스를 방문한다. 롯데홀딩스를 방문한 신 총괄회장은 현장에서 신 회장 외 6명의 이사를 해임한다. 신 총괄회장은 신 회장의 집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 회장은 집무실 문을 열지 않았다. 롯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두고 신 회장이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7월 28일

신 회장은 츠쿠다 다카유키 일본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후 명예회장에 앉힌다. 본인들의 해임 건은 무효로 처리했다. 신 전 부회장이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대동해 벌인 불법해임이 이유다.

이때부터 롯데그룹은 본격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알츠하이머' 병 초기라는 진단까지 내놓았다.

이날 해임당한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귀국했다.

◆7월 29·30일

신 전 부회장은 29일 '롯데뱃지'를 달고 한국에 입국했다. 어떠한 직책도 가지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은 롯데뱃지를 다는 퍼포먼스와 함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소집 후 신 회장의 해임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당시 재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 외 신씨 일가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 7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이 자신감을 갖는 이유다. 또 30일 신 전 부회장은 KBS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해임지시서를 공개했다. 이는 신 회장의 해임이 아버지의 강한 의지임을 증명한 것이다.

◆ 7월 31일

일본에 남아있던 신 회장은 일본 법무성에 자신을 L투자회사 대표로 등기변경신청했다. 당시 법무성 산하 신주쿠 등기소는 해당 등기변경을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 11일이 걸리는 등기변경 절차를 5일내로 완료했다.

본지가 이달 6일 확인한 결과 10개의 L투자회사에 관해서는 5일내에 처리됐다. 2곳은 등기정리중이다.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등기정리 중인 2곳의 등기변경 내용도 나머지 10곳과 동일하다. 이로써 12개의 L투자회사 대표이사로 신 회장이 등기된다.

신 총괄회장은 공동대표로 남았으며 L4·5·6의 대표를 맡았던 츠쿠다 사장은 대표직을 퇴임하고 대표자리를 신 회장에게 넘겼다. 츠쿠다 사장이 신 회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난 부분이다.

재계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헤드헌팅하고 신 총괄회장의 측근이었던 츠쿠다 사장이 등을 돌린 내막에는 신 회장과 모종의 계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일본롯데의 경영권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일본롯데 이사들이 신 회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부친 기일을 맞아 가족회의가 열렸다. 회의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가족회의를 마친 후 두 형제의 어머니 시게미츠 하츠코(88)씨는 다음날 일본으로 출국했다.

롯데그룹은 지속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 8월 3일

신 회장이 한국에 입국한다. 다음날 4일 신 회장은 롯데 계열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본인이 롯데그룹의 차기 총수임을 과시한다. 이날 한·일 사장단들은 일제히 신 회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계는 이 같은 지지의 뒤에 신 회장이 L투자회사를 장악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롯데 이사회의 지지와 함께 한국롯데 지배자 'L투자회사'를 점령함으로 사실상 승리가 결정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L투자회사' 관련 일지

날짜	내용
6월 30일	신격호-신동빈, L투자회사 대표이사 관련 모종의 합의 가능성
7월 16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신동빈 취임
7월 27일	신격호 일본행, 신동빈 외 이사 6명 해임
7월 28일	신동빈 일본행, 롯데홀딩스 이사회 신격호를 명예회장으로 사실상 퇴출
7월 31일	L투자회사 변경등기, 신동빈 12개사 모두 대표이사로 취임
8월 3일	신동빈 입국

롯데그룹株 끝없는 추락… 시가총액 2조원 이상 증발

계열사 2분기 실적 호조도 덮어버린 '反롯데 정서'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에 반(反)롯데 정서가 확산되면서 롯데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롯데 계열사 시가총액은 2조원 넘게 증발했다. 특히 초반 '형제의 난' 이슈에 상승하던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마저도 고꾸라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그룹 관련주는 약세장을 연출했다. 롯데쇼핑은 전일 대비 3.06%(7000원) 내린 2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롯데제과는 6.36%(12만원)로 큰 폭 내려 176만7000원을 기록했다. 롯데케미칼(-0.41%), 롯데하이마트(-4.88%), 롯데손해보험(-3.43%)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다만 롯데푸드와 롯데칠성은 각각 2.01%, 0.44% 올라 4일, 6일 만에 힘겹게 반등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칠성(우선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롯데푸드, 롯데손해보험 등 총 8종목의 롯데그룹 관련주가 상장돼있다.

이들 종목은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며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는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던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각각 12.66%, 5.17% 오르는 등 깜짝 반등한 이후 연일 하락 중이다.

이들 계열사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롯데케미칼이다. 롯데케미칼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639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9% 상승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이익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시장 예상치인 4473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이지만 롯데그룹 내홍으로 식어버린 투자심리를 살려내진 못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17일부터 현재까지 14거래일 동안 주가가 14%나 급락했다. 시가총액도 9조6999억원에서 8조3118억원으로 줄어들며 1조3881억원이 빠져나갔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 주가는 11.29% 내려 3253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어 롯데하이마트(-10.38%), 롯데제과(-7.58%), 롯데푸드(-5.26%), 롯데쇼핑(-1.33%) 순으로 낙폭이 컸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사 시가총액은 지난달 17일 종가 기준 25조7405억원에서 6일 23조4823억원으로 2조2582억원이 사라졌다.

롯데그룹은 올해 상반기 끊이질 않았던 제2롯데월드 안전논란에 이어 하반기 경영권 분쟁이 국적 논란으로 치닫는 등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민·관·정이 모두 나서 롯데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반롯데 정서가 확산되고 롯데가 일본기업이라는 이미지까지 겹쳐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배구조가 정리되기 전엔 롯데그룹 관련주도 불안한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보배 기자 bobae@

'비정한 아들' 신동빈의 롯데판 고려장

기업보국 일군 아버지를 '치매노인'으로 몰며 끌어내려 '거화취실' 하던 신 회장, TV까지 등장해 절박함 호소

신격호(94·사진)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는 '거화취실(去華就實)'이라고 쓰여진 액자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한다'는 그의 철학이다.

수행원을 한 사람으로 제한, 티내지 않고 조용히 롯데백화점 매장을 자주 찾았던 그는 자신이 지나갈 때 사람들을 비키게해 길을 터주거나 하면 점장을 호되게 야단친 일화로도 유명했다.

나서는 것을 싫어했던 그는 언론에도 잘 등장하지 않아 '은둔의 경영인'으로 불렸다. '조용한 리더십'으로 존경받았던 그다.

그런 그가 TV 화면에 등장해 자신의 아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알렸다. "차남 신동빈을 한국롯데 회장과 롯데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다"며 "70년간 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자신을 배제하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TV속 그의 모습에는 말못할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롯데그룹에서 현대판 고려장(高麗葬)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는 듯 했다.

신 회장은 부친 신 총괄회장을 '치매 노인'으로 몰며 롯데를 접수했다.

아버지 몰래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12개 'L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완료하며 롯데그룹을 장악했다.

그는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19세에 83엔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고생 끝에 매출 83조, 한국 5위의 재벌기업을 일궈낸 기업보국의 정신이 있었던 한국사에 남을 기업인을 노욕을 넘어 노추로 얼룩진 초라한 노인으로 몰아갔다.

한국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에 파상 공세를 펼치며 신 회장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공식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을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릿해졌으며 최근 롯데호텔 집무실에서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격호 총괄회장 측근과 일본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된 육성과 영상을 통해서도 신 총괄회장은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

신 회장은 아버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수족같았던 이들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아버지는 그래도 자식이 안타까운 모양이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일 육성 공개를 통해 "신동빈의 눈과 귀를 멀게한 참모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재벌 해외계열사 지분 공시 의무화 추진

당정, 롯데사태 관련 논의

당정이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재벌 총수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롯데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관련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고 또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변환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에서 최대주주와 대표자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재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단기 보고서(8월 17일 제출 시한) 최대주주 공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보고하는 등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논의가 오간 것도 전했다. 그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순환출자 고리 수가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동시 공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대기업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정원 기자 garden@

롯데 '애국' 마케팅 롯데물산이 광복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롯데월드타워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다. 건물 70층, 지상으로부터 304m에 설치된 국내 최고 높이 태극기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롯데물산 측은 밝혔다. /뉴시스

최경환 "롯데 자금 흐름도 살펴보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물론이고 자금 흐름까지 관계기관에서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5대 그룹인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 오너 일가는 경영권 다툼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발효했으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순환출자 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

SKC 2분기 영업익 592억…33.1% 증가

화학사업은 471억, 97.1%↑

SKC는 올해 2분기 매출 6324억원, 영업이익 592억원, 당기순이익 229억원의 실적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3% 줄고 영업이익은 33.1%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7.9% 증가했다. 상반기 실적은 매출 1조3334억원, 영업이익 1206억원, 당기순이익 460억원을 올렸다. SKC는 2분기 영업이익률이 9.4%라고 밝혔다.

화학사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1% 증가한 471억원으로 필름사업의 실적 부진을 초과하며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고 전했다. 사측에 따르면 2분기 화학사업은 매출 2485억원, 영업이익 471억원, 영업이익률은 19.0%를 기록했다.

PG(프로필렌글리콜)의 고부가 제품인 식품용, 의약품용 매출비중의 확대와 신규고객 확보로 수익개선을 이끌었다. Polyol 제품의 Location Mix 고도화(수익이 양호한 수출지역 판매 확대) 전략 실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필름사업은 2분기 매출 1775억원, 영업이익 84억원, 영업이익률 4.7%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모바일 등 주요 전방산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열수축과 산업용 필름시장은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름사업은 고기능 소재 판매확대와 신규고객 확보 등의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4.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자회사 2분기 매출은 2064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이었다.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구조 조정으로 매출액 축소와 일시적 비용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바이오랜드 신규 편입과 SKC에어가스의 수익성 지속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동일한 금액을 기록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광복절특사' 김승연·최태원 형평성 논란

모호한 특사기준에 법조계에서도 비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복역기간, 배임·횡령 액수 등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 회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통제 규정까지 전혀 없어 특사 기준이 모호해왔지만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146일만 수감생활한 김 회장과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을 특사 명단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법조계에선 김 회장이 최 회장 등 수감 중인 기업인에 비해 배임·횡령 규모와 특사 충족 조건(형기의 3분의1 이상 복역)부터 다르기 때문에 김 회장을 최 회장과 같이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김 회장은 2012년 8월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겨 1041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패혈증을 앓고 있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146일 동안만 수감생활을 했다. 4년의 징역살이 기간 중 다섯달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 받고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명령을 받은 뒤 풀려났다.

김 회장은 1993년 외화유출 혐의, 2007년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두 번 구속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돼 사실상 경영에 복귀했고 이번 특사로 집행유예 꼬리표까지 떼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특가법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만이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지난해에는 등기임원 사임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김 회장이 급여와 상여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

반면 최 회장은 2013년 SK텔레콤과 SK C&C 등 주요 계열사로부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로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급을 빼돌려 14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의 형기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특사 조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계열사 지분을 회수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 모아 회생불능 상태의 LIG건설 명의로 215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 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1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부회장도 2년9개월 이상 형기를 채웠다.

여러모로 김 회장과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 간의 간극이 존재해 형평성을 따져 특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는 "특사는 대통령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 그 기준을 일일이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이번 사면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형을 살지 않은 기업인에게까지 특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법의 정의가 눈앞에서 무너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애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를 의사를 보였다면 이런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으로서는 사회의 전반적 질서,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홍원 기자 hong@metroseoul.co.kr

교사, 한 번이라도 성범죄땐 바로 퇴출

서울교육청 무관용원칙 적용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연루 교사를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진데 대한 대책 마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처하겠다"며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마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며 "교육청도 이에 발맞춰 바로 지침과 징계 양정 등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교사의 성범죄 사안을 접수한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곧바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교직원 대상의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서이 기자

"핵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원폭 70주년, 탈핵 사회를 위한 푸른하늘을 향한 행진'을 하며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장이 구조 안 해 승객 숨지면 최대 무기징역

수상구조법 내년부터 시행

내년 1월부터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혼자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조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이다.

현행 수난구호법에 따르면 선박사고를 낸 가해 선박 선장과 승무원에게는 구조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해 선박이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에게는 그러한 법적 의무가 없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준석 선장도 현행 수난구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새 수상구조법에는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됐다.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난 현장에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선장과 승무원은 사고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서이 기자

돈이면 끝?… 입찰담합 제재 완화 시끌

잇단 비리에도 과징금 처분 법조계 "악순환 고리 끊어야"

건설사들의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비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번 비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삼환기업·경남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원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된 상태지만 법망을 피해 사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에게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전환키로 해 이러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비리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동우(법률사무소 호연) 변호사는 "입찰담합 제재 완화는 건설사들이 죄를 짓고도 봐주는 것과 같다"며 "건설사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면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건설사들이 지속적으로 입찰담합을 벌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과징금 처분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입찰담합 제재 자체를 완화하는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거나 기술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지닌 최저가 입찰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하고 과징금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확인,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5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29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도 공정위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건설공사를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단일 건설 담합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2000년과 2006년, 2012년에 각각 특별사면을 통해 건설사들의 입찰제한 조치를 풀어줬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증권株, 나홀로 실적 호전… 주가도 훨훨

| 마켓인사이트 |

2분기째 어닝서프라이즈
정부 증시활성화 대책에
3분기도 장밋빛 실적 전망

국내 주요 상장사들이 올해 2분기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주는 2분기 연속 '깜짝실적'을 시현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의 호실적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의 영향이 크다"면서 "상품 운용에서의 이익 감소폭이 시장 예상보다 작은 데다 자산관리와 투자은행(IB) 업무 수익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증권주는 최근 부진을 면치 못했다. 올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증권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최근 3개월간 주가가 14% 하락했고, 삼성증권과 현대증권도 각각 21%, 23%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6일에는 삼성증권(1.39%), 대우증권(3.86%), 대신증권(2.33%), 현대증권(3.07%) 등 대표 증권주들이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한 것은 정부가 비과세 상품을 도입키로 하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분기 호실적도 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KDB대우증권은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9% 늘어난 1536억 3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27% 증가한 1183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앤트레이딩(S&T)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실적을 달성한 결과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우려에도 상품운용 이익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면서 "리테일(소매금융) 강화 전략이 거래대금 증가와 맞물리면서 분기 이익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101개로 유지된 리테일 점포 덕분에 거래대금 증가로 이익 개선폭이 특히 컸다"며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은 수익 기준 지난 1분기 7.0%에서 7.4%, 약정 기준 5.7%에서 6.0%까지 지속적인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1407억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12.7%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911억4300만원으로 174% 증가했다.

차인환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기업금융 부문과 트레이딩, 리테일 부문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수익력 확대를 보여준 점이 인상적"이라며 "아이엠투자증권 합병과 인력 영입을 통한 영업력 확대에 따른 수익력 레벨업은 향후 판관비와 대손비용 적립 등의 비용 부담을 상쇄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증권도 1년 전에 비해 1033% 증가한 영업이익 936억37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839억5900만원으로 4617% 늘었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245억29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169억9500만원으로 1983% 급증했다.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028억원으로 한 달 전 919억원에 비해 12% 상향 조정됐다"면서 "삼성증권과 키움증권도 각각 6%, 4% 가량 전망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증권 마감시황

6일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코스피와 환율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주 급락… 코스피, 2010선 '뚝'

삼성전자, 연중 최저가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

코스피가 대형주의 동반 부진에 약세로 돌아섰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47포인트(0.81%) 내린 2013.29로 마감했다.

지수는 오전에는 상승세를 타며 204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주의 급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하락 반전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실적 부진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이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582억원, 87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752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종이 3.02% 급등했다. 이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비과세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힌 데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2.16%), 비금속광물(1.45%), 의료정밀(1.40%), 서비스업(0.93%), 음식료품(0.75%) 등도 상승했다. 반면 전기전자(-3.03%), 섬유·의복(-2.81%), 통신업(-2.78%), 운송장비(-2.27%), 보험(-1.90%)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80% 하락한 111만5000원으로 마감,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다. 현대차(-4.12%), 현대모비스(-1.67%), 기아차(-1.62%) 등 자동차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닥은 사흘째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6.48포인트(0.87%) 오른 747.74로 마감했다.

기관이 730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78억원, 241억원 매도 우위였다.

셀트리온(1.57%), 메디톡스(1.51%), CJ E&M(4.93%)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대부분 상승했다. /김민지 기자

팔고 또 팔고… 삼성물산·제일모직株 급락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
전일比 각 2000원·7000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인 6일 동반 급락했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3.50%(2000원) 내린 5만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5만7234원을 밑돈다. 제일모직도 4.17%(7000원) 하락한 16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대거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삼성물산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5억8600만원, 188억400만원어치 순매도했다. 제일모직은 외국인이 101억1600만원, 기관이 467억2700만원어치를 내던졌다.

이날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했다.

엘리엇 대변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시장의 과대평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엘리엇은 이런 상황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로서의 권리와 투자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결과와 관련된 사안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7.12%로 이 가운데 합병 발표 이전에 확보한 4.95%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엘리엇은 '처분 가능한 지분 일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규모와 행사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성신약은 보유 지분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그러면서 "합병 이후 주가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지분 2.12% 전부와 윤 대표를 비롯한 일성신약 오너일가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0.25%에 대해서도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120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윤 대표는 "삼성물산에 10년 넘게 장기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합병 과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삼성물산의 태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해 왔다.

엘리엇과 일성신약 등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식에 주가는 급락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양사의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

신한금투, ETN 수익률 톱5 중 4개 석권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ETN(상장지수증권) 수익률 TOP5에 자사 상품 4개가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 한 달 간 상장된 시장 전체 ETN은 43개다. 이중 수익률 TOP5 가운데 4종목이 신한금투가 운용하는 ETN으로 점유율은 80%이며 평균 수익률은 13.67%를 기록했다.

1위는 '신한 인버스 WTI원유 선물 ETN(H)'로 한 달 간 20.44% 수익률을 보였다. '신한 인버스 브렌트원유 선물ETN(H)'이 15.98% 수익률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한 인버스 구리 선물 ETN' 9.74%, '신한 인버스 금 선물 ETN(H)'이 8.54% 수익률을 기록하며 TOP5에 올랐다. 주가하락, 달러 강세(환율 상승)에 투자하는 상품인 '신한 US D K200선물 바이셀 ETN'도 8.44% 수익률로 6위를 기록했다.

신한금투는 하반기에도 대만, 인도 증시와 농산물(옥수수) 등 원자재에 투자할 수 있는 ETN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대만과 옥수수 관련 투자 상품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상장 상품으로 최근 두 기초자산 모두 조정을 받고 있다. /김보배 기자

내년부터 계좌 하나로 종합자산관리 가능

만능계좌 'ISA' 도입 확정
예적금·펀드·증권 등 운용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시 9% 분리과세 적용

내년부터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등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편입할 수 있으며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운영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ISA란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ETF 포함),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한다. 개인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영하면서 세금까지 면제 받을 수 있는 '만능계좌'인 셈이다.

◆ 5년간 1억원까지 적립가능…"수익 200만원 초과시 분리과세"

ISA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계좌내 통합과세와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후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다. 특히 만기 인출 시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약 이익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반대로 ISA 유지기간(5년) 중 상품간·기간 간 손익통산 후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컨대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과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개별 상품별 투자자는 300만원 수익에 15.4%가 붙은 46만2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반해 ISA내에서 투자를 할 경우 과세기준인 210만원의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이 제외된다. 결국 한도 초과분인 1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과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45만2100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모든 근로·사업소득자 가입 가능…"기존 펀드 편입 안돼"

납입은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한다.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해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 가능하다.

이밖에 기존에 가입한 펀드는 ISA에 편입될 수 없다. 수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그간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특정 계층 위주로 이뤄졌다면,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신규 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한편 계좌는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과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설할 수 있으며 상품을 선택해 신탁업자에게 운용을 지시하면 된다.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이메일 등으로 교부해 가입자가 운용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지원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했다"며 "시장상황에 맞춰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하고 순이익에 과세해 편의성과 상품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오는 9월 중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할 예정"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증권·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ISA 제도도입 TF를 운영해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연장여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ISA 제도를 운영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KB금융, 전기차 충전회사에 사무실 내준 까닭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KB 스타터 밸리' 추진

지난해 5월 설립된 '지오라인(GeoLine)'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개발업체다. 이 회사는 특허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지만 사용전력에 대한 과금과 결제 등 금융부문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노하우 부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때 한줄기 빛이 되어 준 곳이 바로 KB스타터스 밸리다. 사무실부터 사업 홍보와 결제 관련 멘토링까지 가능성 하나만 믿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이다.

6일 KB금융그룹은 핀테크 스타트업 집중육성 프로젝트인 'KB 스타터 밸리(Starters Valley)'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출범한 KB핀테크 허브센터의 핀테크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와 전계열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결합한 프로젝트다. 이곳에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해 입주공간과 투자연계, 멘토링, 제휴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 요인으로 '투자도 핀테크로' 실행하는 혁신적 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지오라인(GeoLine)' 역시 KB의 지원을 받게 되는 회사다.

KB는 국민은행 명동본점 별관에 위치한 'KB스타터 밸리 연구공간' 첫 입주사로 '지오라인'을 결정했다. 또 KB핀테크HUB센터와 KB카드의 전문인력이 결제와 관련된 멘토링을 통해 IOT와 금융을 결합한 친환경 핀테크 사업을 구현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오라인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8월 중 지자체·통신사 제휴를 추진하여 사업확장·해외진출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KB핀테크HUB센터의 관계자는 "KB Starters Valley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육성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전계열사의 공감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가장 핀테크적인 접근으로 스타트업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한국형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KB는 이날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오픈트레이드'(OpenTrade)와 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매칭투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매칭투자 프로그램은 초기자금이 필요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유망 업체를 발굴, 오픈트레이드의 크라우드펀딩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다. 목표자금 유치 성공시, KB투자증권의 매칭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참여 스타트업들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단순 자금 유치 효과 외에 체계적 사업 홍보효과와 집단지성을 통한 사업성 검증의 기회도 가질 수 있다고 KB금융은 기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매칭투자는 가장 핀테크적인 방법으로 핀테크업체를 지원하는 금융권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술력이 있으나 초기자금이 없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銀 적립계좌 '신한 실버리슈' 출시

신한銀 "실물 없이 거래 가능"

신한은행은 6일 실물 거래 없이 은(銀)을 사고 팔 수 있는 '신한 실버리슈'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을 통장에서 그램(g)단위로 매입·매도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은 적립계좌 상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품은 국제 은 가격과 원·달러 환율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원금비보장형으로 0.01g부터 매입 할 수 있다.

만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입출금하면 된다.

가입은 개인과 법인 고객 누구나 신한은행 전 영업점과 인터넷뱅킹(법인제외)에서 하면 된다.

현재 은 가격은 금(金)가격 대비 1/70 수준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신한은행 측은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신한 실버리슈' 가입고객에게 목표수익률과 위험수익률 SMS 서비스와 정기수익률 통보서비스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 실버리슈'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누적 구매량 1kg이상 고객 86명을 추첨해 은수저 세트를 증정하는 '실버리슈 Birth Day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버리슈 출시로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 골드·실버 적립계좌를 보유하게 됐다"며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초자산을 확대해 고객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과 다양한 투자상품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5900억 제시' 박삼구, 금호산업 인수 발 뺄까

호반건설 보다 낮은 가격 제시해 협상 결렬
우선매수청구권 포기 땐 제3자 매각 재추진

금호산업 매각가격을 두고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과 채권단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채권단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1조200억원에 매각하겠다는 입장인데 비해 박삼구 회장은 호남건설이 지난 5월 입찰당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5900억원을 매입가격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매각액 차이는 무려 43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투자은행(IB)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주관사인 KDB산업은행과 박 회장 측은 지난 4일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채권단은 다음달 중에 최종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앞서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지분 매각 협상 가격을 주당 5만9000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격은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책정한 금호산업의 기업가치 주당 3만100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90.3%(2만8000원)가 추가된 액수다.

이 운영위원회는 미래에셋, 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국민은행, 대우증권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로비. /뉴시스

이중 가장 많은 지분과 의결권을 보유한 미래에셋(지분율 8.55%)은 주당 최소가격 6만원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이번 매각으로 그간 입은 금호산업의 손실분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2006년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때 610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금호산업은 3년 후인 2009년 말 대우건설 주가가 3만2576원 이하일 경우 투자자금에 연 9%(복리) 이자를 붙여 매입하겠다(풋백옵션)고 약속했다.

그러나 금호그룹이 경영위기에 빠지자 미래에셋은 7300억원 중 4600억원만 돌려받았다. 나머지 2700억원은 주당 11만원에 금호산업 주식으로 대신 받았다.

결국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박삼구 회장이 주장하는 5900억원에 매각할 경우 투자금 2700억원 중 19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반면 박 회장 측은 1조원 이상의 매각 가격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의 요구는 지난 5월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6007억원)보다 상당히 높다. 당시 채권단이 매각을 위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내세운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10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다면 채권단은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제3자 공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제3자 매각에 실패하면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은 되살아난다.

IB업계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매각가격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박 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8000억원대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양측의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힐스테이트 금호 항공조감도. /현대건설 제공

'힐스테이트 금호' 내달 분양

현대건설, 73가구

현대건설은 다음달 서울시 성동구 금호4가 56-1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금호'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금호20구역을 재개발한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141㎡ 총 606가구다. 이중 일반분양분은 73가구다.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별로 ▲84C㎡ 10가구 ▲84D㎡ 5가구 ▲114A㎡ 29가구 ▲114B㎡ 14가구 ▲141㎡ 15가구 등이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응봉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한강공원, 서울숲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엔터식스, CGV, 이마트), 롯데마트 행당점 등이 가깝다. 순천향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양대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접해있다.

성수대교와 동호대교를 이용하면 바로 압구정동으로 연결된다. 도산대로와 논현로, 강남대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과 연결되는 옥수역과 금호역(3호선), 신금호역(5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에는 중앙 동선을 따라 잔디마당이 설계됐다. 단지 내 단차를 이용한 벽천과 휴식공간이 조성된다. 휘트니스, GX룸(샤워실), 실내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등도 들어선다.

아파트 내부는 전 층의 천장고를 기존보다 50mm 높인 2350mm로 시공한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타일과 바닥 난방이 적용된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자녀 방 가구의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컬러벽지(컬러테라피)도 도입된다.

전용면적 84C㎡의 경우 판상형 3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수납공간강화형 선택시 서재, 대형 드레스장(워크인 클로젯 : 걸어들어가 옷도 입고 화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전용 114㎡은 침실 4개에 욕실 2개 구조로 안방에 드레스장(워크인 클로젯)이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9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4-1 힐스테이트 갤러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상반기 국내건설 수주액 전년 比 49%↑

재건축 등 민간부문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대형 공동주택 발주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수주액은 73조90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8%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민간부문은 50조4627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80.5% 늘었다.

민간 토목부문의 경우 기계설치, 철도궤도(민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20.1% 증가했다. 민간 건축은 신규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전 주거용 부문에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102.6%↑). 사무실, 공장 등 비주거부문(69.6%↑)도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89.2%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23조447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8.1% 늘었다. 공공 토목의 경우 도로교량과 댐 수주는 감소했지만, 발전송배전, 항만·공항, 철도궤도 등의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22.6% 증가했다. 공공 건축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하며 전년동기보다 21.2% 감소했다.

6월 국내건설 공사수주액은 15조86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9% 상승한 것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발주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 수주는 5조5954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53.6% 증가했다. 건축공종은 주거부문과 비주거 부문 모두 고른 감소를 보이며 지난해보다 48.5% 감소한 9251억원을 기록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10조2696억원으로 지난해 6월 대비 55.7% 증가했다. 토목은 기계설치, 철도궤도 등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3731억원 증가한 1조1783억원을 보였다.

건축은 주거(60.0%↑), 비주거(52.5%↑)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고, 주거부문 중 재건축 부문에서 크게 호조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57.0% 증가한 9조912억원을 기록했다.

협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소강상태를 보였던 공공부문이 미뤄왔던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집행과 추경물량 집행 가시화로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난달 22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증가세로 돌아선 미분양주택과 미국 금리인상 등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중흥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 이달 중 분양

중흥건설은 이달 중 대구테크노폴리스 A13블록에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를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2층 11개동 총 710가구 규모다. ▲99㎡ 568가구 ▲111㎡ 138가구 ▲126㎡ 4가구 등으로 모든 가구가 중대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첨단과학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주거와 교육, 상업, 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5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DGFEZ) 내 726만9000㎡ 규모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공계대학, 첨단기업 등 우수한 연구·개발(R&D) 기반시설이 유치된다. 오는 12월이면 2단계 사업이 준공된다.

대구테크노폴리스 중흥S-클래스 투시도. /중흥건설 제공

단지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다. 대구수목원도로를 통해 대구 도심 진입이 수월하다. 현풍IC를 통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은 현풍천이 흐르고 3만8000㎡규모의 수변공원인 비슬구천공원과 맞닿아 있다. 만유인력공원과 뫼비우스공원, 아폴로공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내부는 모든 가구에 4-베이(Bay) 혁신평면설계를 적용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알파룸 제공으로 넓은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 628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KT '기가토피아' 전략부재로 고전

상반기 유선사업 부문 매출 전년동기比 7.8%↓
유선사업 매출 매년 감소세 불구 투자만 늘려

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등 KT의 유선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선사업을 넘어서는 4000억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적은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선시장에서 국내 최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KT는 이 시장에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6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유선사업분야인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점유율은 각각 80.9%, 42.2%를 차지한다. 지배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전략부재로 매출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KT의 유선부문 매출은 2010년 7조5340억원, 2011년 6조9510억원, 2012년 6조3930억원, 2013년 5조9650억원, 2014년 5조5390억원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올해 상반기 실적도 하락세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KT의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초고속인터넷과 집전화 등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가입자 증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결합혜택 확대로 매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황창규 KT회장.

KT의 올해 상반기 유선사업 부문 매출은 2조607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8288억원)보다 7.8% 감소한 수치다. 그중 유선전화 매출은 1조1897억원으로 전년(1조3455억원)에 비해 11.6% 감소했다. 초고속인터넷 매출도 3.1% 줄었다.

매출 하락세에도 유선 부문 설비투자는 늘리고 있다. KT는 올 상반기에 4272억원을 투자했다. 무선부문 설비투자액인 3171억원보다 더 많다. 아울러 KT는 올해 총 유선 설비투자액을 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8000억원을 전망한 무선 설비투자액보다 43%가 많은 수치다.

무선 투자설비액은 2012년 2조1052억원, 2013년 1조2938억원, 2014년 9005억원, 올해 8000억원(추정치)로 매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유선 투자설비액은 2012년 1조1062억원, 2013년 1조2825억원, 2014년 1조2832억원, 올해 1조4000억원(추정치)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유선 투자가 무선 투자 규모를 역전한 것은 경쟁사들의 투자 추세와도 역행하는 구조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설비투자액 중 무선은 각각 2조1450억원, 2조3160억원인 것에 비해 유선(SK브로드밴드)은 각각 6014억원, 5762억원이었다. LG유플러스는 무선 설비투자액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9696억원, 1조2539억원인 것에 비해 유선 설비투자액은 각각 4974억원과 7697억원 수준이다. 무선 설비 투자액이 더 많다.

KT의 유선 부문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유선 산업 전망은 어둡다.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발표에 따르면 유선전화 시장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유선전화 고객이 이동통신으로 이동하면서 매출, 가입자 모두 감소할 거라 내다봤다. 2014년 4조2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유선전화 사업은 이미 전망이 어둡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낮다. 그래서 투자금액은 늘어도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정용 와이파이 구축과 같은 무선서비스와의 결합과 IPTV 서비스 성장성을 보고 유선 부문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T는 기가인터넷에 희망을 걸고 있다. KT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기가인터넷 기반시설에 총 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아직 기가인터넷은 매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LTE 속도 향상으로 인한 기가인터넷의 가치 감소와 시장의 더딘 성장, 여기에 유료방송 가입자 정체까지 이어질 경우 KT 유선사업의 턴어라운드는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전자 'G4' 美 연방정부 보안인증 통과

'LG 게이트' 자체 개발
국가기관 업무용 사용 가능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4'(사진)가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산하 국가정보보증협회(NIAP)의 보안인증을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국가정보보증협회 인증은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보안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보안 인증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이번 인증으로, 'G4'는 세계적인 보안 수준을 갖춘 기기로 인정 받음과 동시에 미국 연방정부 산하 대부분의 기관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한 자격을 획득했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자체 개발한 기업용 보안 플랫폼 'LG 게이트'를 필두로 스마트폰 보안 기술력을 높여 왔다. 'LG 게이트'는 기업 서버 정보에 대한 스마트폰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해킹 방지와 스마트폰 원격관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LG G3'는 지난해 11월 국가정보보증협회 인증을 이미 마쳤고, 이에 추가적인 보안기능 단계를 요구하는 미 국방부 국방정보시스템연구원(DISA)의 보안인증(STIG)까지 통과했다. 이로써 국방부 산하 기관의 업무용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G4'도 현재 국방부 보안인증 절차를 추가로 밟고 있다.

이철훈 LG전자 MC사업본부 마케팅커뮤니케이션FD 상무는 "이번 인증으로 자체 기업용 보안 플랫폼 기술력을 증명했고, 지난 6월 미국에 출시한 'G4'의 판매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SKT 대전혁신센터, 공군 병사 벤처창업 지원한다

공모전 통해 20개팀 선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대전센터)가 군복무 기간 중 선후배 군장병들이 함께 예비 벤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대전센터와 공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대전 공군본부에서 창의 인재 양성과 지역내 창조경제 생태조성, ICT 기반 창조국방형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센터와 공군,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한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 공군 60개 부대, 360건의 아이디어가 참여한 공모전을 통해 총 20개팀을 최종 선발했다. 다음달 중 5일간의 집합 창업교육 등 전문 멘토링을 제공키로 했다.

대전센터는 선발 병사들이 갖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와 창업지원을 담당하게 되고, 제대 후에도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사업화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 공군은 병사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병영생활의 자기주도적 문화를 확산하고, 군 입대 전 벤처창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젊은 병사들에게 사업을 구체화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문경 기자

6일 논현동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으로 실내를 빨리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전기세 걱정까지 덜어주는 삼성전자 스마트에어컨 'Q9000'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 스마트에어컨 주문 폭주

폭염·보상 판매 덕
Q9000, 전년比 3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되는 등 낮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에어컨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스마트에어컨 Q9000의 지난달 마지막주 판매량이 전주 대비 2.5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에어컨 자체 성능이 뛰어난데다 구형 에어컨을 반납하면 최대 60만원을 할인해주는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보상 판매전'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은 개별 제어가 가능한 3개의 바람문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뿜어내며 '에어3.0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내의 온도·습도·청정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압축기와 모터의 효율을 높여 전 모델이 1등급의 150% 이상 효율을 갖춘 에너지 프론티어를 달성해 전기료 부담까지 덜어주는 초절전 강력 냉방을 구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재규어의 야망' 국내에 5년간 50종 선뵌다

재규어XE·레인지로버… 백정현 대표 "순차 출시"

재규어 랜드로버가 스포츠 세단 '재규어 XE'를 시작으로 5년간 50여종의 신차를 선보인다.

백정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대표는 독일차와는 다른 프리미엄 서비스로 국내 수입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자신했다.

백 대표는 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재규어 XE를 공개하며 "재규어 랜드로버가 향후 5년간 선보일 완벽한 신차와 스페셜 에디션 모델,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세부 모델을 포함하는 총 50여종의 신차 공개 계획의 신호탄"이라고 소개했다.

또 "국내 시장에서 독일차와 물량 경쟁을 하진 않겠다.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상품성을 앞세워 프리미엄 가치로 승부하겠다. 올해 하반기 레인지로버 신모델들을 내년 상반기 올 뉴 XF와 F-PACE를 국내 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평균 40% 성장해 본사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재규어, 8위의 랜드로버 시장이다. 올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다"고 전했다.

백 대표는 상반기 4700대 판매한 만큼 올 연말까지 1만대 판매 돌파를 전망했다.

그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27개 서비스센터와 300개 워크베이를 갖추겠다"며 "올 가을에는 분당 수내동에 트레이닝 센터를 오픈해 테크니션의 숙련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재규어 XE 차량 옆에서 레이싱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손진영 기자 son@

이날 공개한 재규어 XE는 총 5가지 세부모델로 △2.0리터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탑재한 XE R-Sport △XE 포트폴리오 △XE 프레스티지와 △2.0리터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의 XE 프레스티지 △3.0리터 V6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의 고성능 모델인 XE S 등이다.

국내 공식 출시는 9월로 부가세 포함 가격은 4760만~6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측에 따르면 재규어 XE는 동급 최초로 알루미늄 인텐시브 모노코크 차체를 채택해 경량화와 강성을 확보했다.

역대 재규어 세단 중 가장 가볍고 강성이 높으며 공기저항계수는 낮다.

2.0리터 인제니움 디젤 및 2.0 리터 가솔린 엔진, 3.0리터 가솔린 총 세 가지 엔진으로 가동된다.

동력은 8단 자동 변속기의 기어 변속을 통해 후륜으로 전달된다.

모든 엔진에는 인텔리전트 스톱·스타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됐다.

재규어 랜드로버 최초의 자체 제작 엔진인 2.0리터 180마력의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XE에 처음 도입됐다.

V6 엔진은 340마력, 45.9kg.m의 토크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5.1초가 걸린다.

2.0리터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00마력, 최대 토크 28.6 kg.m로 제로백은 7.7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휴가대신 낙후지역서 IT교육

삼성전자 임직원 해외봉사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여름휴가를 대신해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임직원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은 해외 봉사활동을 자원한 임직원들 중 선발된 인원이 1주일간 해외에서 펼치는 활동이다.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함에도 매년 평균 약 10: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

2010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1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지난달 아제르바이잔을 시작으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잠비아, 베트남,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총 7개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임직원 해외봉사단'이 아제르바이잔에서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임직원 165명, 대학생 봉사단 '나눔 Volunteer 멤버십' 20명 등 총 230여 명이 참여하며, 낙후 지역에서 IT교실 구축, 소프트웨어와 IT교육 등을 진행한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두이노, 드론 등의 주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자 eunj71@

현대 투싼, 유럽서 '최고의 소형 SUV' 뽑혔다

獨 차전문지 두곳서 1위 선정

현대자동차는 투싼(사진)이 유럽에서 최고의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로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독일 자동차 전문잡지 아우토빌트와 아우토자이퉁는 최근호에서 국내 소형SUV에 해당하는 콤팩트 SUV세그먼트 차량 비교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두 매체 모두 현대차의 투싼을 1위로 선정했다.

2010년에는 전 모델인 투싼ix가 아우토빌트 선정 '가장 안전한 소형SUV'에 오른 바 있다.

이번 비교테스트 평가에서는 투싼이 기존의 베스트 셀러 차들을 제치고 종합평가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아우토빌트 비교 평가는 현대 투싼, 마쯔다 CX-5, 포드 쿠가, 혼다 CR-V 등 4개 차종을 대상으로 ▲차체 ▲엔진 ▲주행성능 ▲연결성 ▲친환경성 ▲편의성 ▲경제성 등 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투싼은 총점 750점 만점 중 55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마쯔다 CX-5가 531점, 포드 쿠가가 525점, 혼다 CR-V가 521점을 받았다.

투싼은 항목별로도 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엔진과 친환경성을 제외한 5개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아우토빌트지 총평에서 투싼에 대해 "강력한 주행성능과 편리성을 갖춘 차"라며 "현대차 투싼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가 돼 있어 종합 테스트에서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또 아우토빌트는 투싼의 제동력, 내비게이션 편리성, 유지비, 워런티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BMW 뉴 6시리즈 4종 출시

1억1730만 ~ 2억290만원

BMW 코리아는 뉴 6시리즈의 총 4가지 라인업을 6일 출시했다.

4가지 라인업은 뉴 640d xDrive 그란쿠페 M 스포츠 패키지, 뉴 650i 컨버터블(사진) 그리고 고성능부문의 뉴 M6 그란쿠페와 뉴 M6 쿠페 등이다.

뉴 6시리즈는 주행 성능과 함께 편안한 승차감, 첨단 기술, 우아한 디자인 등 모든 기대감을 만족시켜주는 모델이라고 BMW는 전했다.

가격은 뉴 640d xDrive 그란쿠페 M 스포츠 패키지가 1억1730만원, 뉴 650i 컨버터블이 1억4990만원이다. 뉴 M6 그란쿠페와 뉴 M6 쿠페는 각각 2억290만원, 1억8590만원이다. /정용기 기자

SK하이닉스 '여름방학 행복캠프' 자녀들과 '드림캠퍼스' 등 진행

SK하이닉스는 여름방학을 맞아 임직원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여름방학 행복캠프'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여름방학 행복캠프는 △드림 캠퍼스 △가족 홈런 데이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단체 응원 △유소년 축구 교실의 총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는 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임직원 및 가족 67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드림 캠퍼스'는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수 대학캠퍼스를 방문해 현지 재학생들과 만남을 갖고 스스로의 진학 목표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카이스트(KAIST)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SK하이닉스 임직원 자녀들과 카이스트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제공

'드림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CIS사업부 조광준 수석의 자녀 조선주(석관중 1학년) 양은 "평소 과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대학생 선배를 만나 경험담과 조언을 듣고 나니 향후 진학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한진 기자 hjc@

갤럭시S6 시리즈, 국내 고객만 역차별

삼성전자, 글로벌 가격 인하
국내 인하액 가장 낮아 논란
미국 23만원, 한국은 11만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폰인 갤럭시S6시리즈 가격 인하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갤럭시S6 엣지에 대해서만 가격 할인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6 엣지의 미국 가격을 최대 23만원까지 낮췄다. 갤럭시S6 엣지 128GB를 기준으로 미국은 23만원, 중국은 19만원, 한국은 11만원이 할인됐다.

6일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날 티모바일이 미국 이동통신사 최초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가격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미 삼성전자는 전날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가격을 낮춘 바 있다.

티모바일은 이날부터 갤럭시S6 32GB 무약정 단말기 가격을 100달러(약 12만원) 인하한 579.99 달러(약 68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64GB 모델도 10 0달러 내린 659.99 달러(약 77만원)가 됐으나 128GB 모델이 무려 200달러(약 23만원) 저렴해지면서 64GB 모델과 같은 가격이 됐다.

아울러 티모바일은 갤럭시S6 엣지 32GB 모델은 679.99 달러(약 80만원), 64GB, 128GB 모델은 759.99 달러(약 89만원)로 각각 가격을 인하했다.

또 중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중국 시장에서 갤럭시S6 시리즈 모델 가격은 800 위안(약 15만원) 내려갔다. 갤럭시S6 32GB 모델은 4488 위안(약 84만원), 갤럭시S6엣지 32GB 모델은 5288 위안(약 99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9%에 그쳐 두자릿수 점유율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서 점유율 만회를 위해 가격 인하 정책을 내놓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제품(갤럭시S6 엣지)에 대한 가격 인하만 적용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엣지 가격은 출고가보다 10만원 가량 낮아졌다. 갤럭시S6 엣지 32GB 모델은 97만9000원에서 87만8900원으로, 64GB는 105만6000원에서 94만4900원으로 인하됐다. 갤럭시S6 엣지 128GB는 118만8000원에서 107만6900원으로 내렸다. 할인폭이 미국·중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다.

삼성전자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

그러나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갤럭시S6 엣지의 출고가 인하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업계는 재고 소진을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재고소진을 위해 진행하는 것 같다"며 "해외보다 가격 인하폭이 낮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국내판매가도 글로벌 시장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토요타 프리우스. /한국토요타 제공

토요타, 하이브리드 배터리 무상보증 연장

한국토요타는 프리우스와 캠리 하이브리드 고객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연장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전 토요타 하이브리드 구매 고객 중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의 제조사 기본 보증 (5년/8만Km 또는 3년/10만km)이 종료된 고객은 5만원에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연장보증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일로부터 1년/주행거리 2만km 이내까지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에 대한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메인 배터리 연장보증이 종료되면 다시 구매할 수 있다.

기본 보증이 만료된 고객 중 최초 차량 인도 후 10년/20만km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 점검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용기기자 yonggi@

NHN엔터 2분기 영업손실 82억원

PC게임 매출 감소 이어져

비게임 사업부문 강화를 선언하며 공격적인 M&A를 진행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가 올 2분기 성적표를 공개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올 2분기 영업손실 82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12.51% 늘어났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56억원으로 4.86%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23억원으로 12.59% 늘었다.

2분기 매출을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PC온라인 게임은 웹보드 게임의 지속적인 규제 영향과 노후화된 PC게임 매출 감소가 이어지며 전분기 대비 18.6% 감소한 469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게임은 일본에서 서비스 중인 'LINE 디즈니 쯔무쯔무'와 'LINE POP2'의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파루사가', '드리프트걸즈' 등 일부 주력 게임의 매출 부진과 자연감소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2.8% 감소한 435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매출의 경우 자회사 피앤피시큐어의 기업 및 공공기관 수주 증가와 티켓링크의 프로야구 시즌 매출 증가 등 전분기 대비 15.2% 증가한 352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매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PC온라인 게임이 52%, 모바일 게임이 4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국내 매출이 512억원으로 57%, 해외 매출이 391억원으로 43%의 비중을 보였다.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최근 글로벌 9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크루세이더퀘스트'를 비롯 '가디언헌터'와 같은 글로벌 출시 작들이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글로벌 진출 경험을 토대로 출시 예정 작품들 역시 글로벌 히트상품이 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신사업의 한 축인 간편결제 '페이코'와 관련해 지난 1일 공식적인 서비스 출시를 선언하고 9월부터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단순 가입자가 아닌 결제 경험이 있는 회원 500만명을 목표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T로밍 음성 1·3·5만원' 요금제 출시

SK텔레콤
로밍 음성발신 요금 할인

SK텔레콤은 자동로밍이 가능한 전세계 202개국에서 로밍 음성발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T로밍 음성 1·3·5만원' 요금제를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요금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발신, 국제발신, 현지발신 등 로밍 음성발신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발신, 국제발신, 현지발신 등 로밍 음성발신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제에 따라 10일 또는 30일 동안 10분, 30분, 50분에 해당하는 로밍 음성발신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각각 1만원, 3만원, 5만원(부가세 별도)에 제공된다.

/정문경 기자

LGU+, 美 지보사에 200만 달러 지분 투자

LG유플러스는 미국 IT벤처기업인 지보(JIBO)사에 200만 달러를 들여 지분 투자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보사는 현재 인공지능을 갖춘 세계 최초의 소셜 홈 로봇인 '지보'를 개발하고 있다. 지능은 물론 감성까지 갖춘 소셜 홈 로봇 지보에 대한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초 미국에서 상용화될 전망이다.

지보사는 미국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가족용 로봇이다. 가족에 대해 메시지 전달, 사진 촬영, 리마인딩, 이야기 구연, 이야기 듣기, 화상 전화 등 6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초연결시대를 만드는 '사물인터넷(IoT) 세계 1위' 사업자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설립된 IT벤처기업인 지보사는 향후 소셜 홈

소셜 홈 로봇 'JIBO'

로봇 등을 앞세워 미국 외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명품백 싸진다… 개별소비세 기준 완화

정부 2015 세법개정안 발표
부과 기준 200만→500만원
개소세는 아예 폐지될 전망

'2015년 세법개정' 생활밀착형 세재 개편안

주요 내용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려
해외 직구 관세 환급 대상 확대	해외 직구 시 단순 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 허용
하우스 막걸리 도입	음식업자가 탁 · 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가구 · 안경소매업 등으로 확대	건당 현금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외직구 150달러까지 면세	목록통관 한도와 소액면세 기준이 각각 물품가격 100달러,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이하에서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로 변경

국민 소득수준 향상을 이유로 명품가방, 귀금속 등 사치성 물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의 대폭 완화가 추진된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했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방, 시계,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가구,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들 제품의 가격이 500만원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내면 된다.

현재 가방·시계 등에는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가격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명품가방의 경우 수입신고가격이 300만원이라면 기준선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에 대해 20%, 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10% 더 붙는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 20만원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가격이 600만원인 다이아몬드 반지에 지금까지는 세금이 80만원 붙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만 부과된다.

녹용·로열젤리와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된다. 홍삼 같은 건강식품과 고가 화장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져 이들 품목에 사치품 딱지를 붙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01년(100만원→200만원) 이후 15년 만이다. 개소세 개편안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

또 관세 소액면세한도가 15만원에서 150 달러(물품가격 기준)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 단순변심에 대해서도 반품 6개월 이내에 관세 환급이 허용된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시장을 개선해 소비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추진된다.

앞으로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가 신설된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 탁·약주와 청주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별도의 제조면허 없이는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밖에 각종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가구나 안경을 파는 소매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KT&G, 민영진 후임은 낙하산?

檢조사중 사퇴… 후임 자리 정치권 경쟁 치열
노조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선임시 강력 투쟁할 것"

민영진 KT&G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공석이 된 사장 자리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 전 사장은 비자금조성 등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됐다.

3일 KT&G에 따르면 이사회는 현재 민영진 전 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KT&G 사장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 1인을 추천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후보자들의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경영실적과 기간 ▲기타 대표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낙하산 임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민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민 전 사장은 사퇴 전 비자금조성 등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G는 지난해 4조1128억원의 매출과 1조17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만큼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내수시장 점유율이 60%를 차지할 만큼 알짜 기업에 속한다. 이런 자리의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관가와 정치권에는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KT&G는 지난 2002년 민영화된 이후 내부 전문가 출신을 선임해왔다. 담배는 재배와 가공생산, 물류 등 1~4차 산업이 총망라된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진 만큼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조는 KT&G 사장 선임 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권 등의 낙한산 인사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청호 전국담배노조 정책처장은 "담배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한 순간의 그릇된 의사결정은 자칫 기업의 존립을 넘어 대한민국 담배주권의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전문경영인 체제의 전통을 지지해왔으며 이 같은 원칙을 단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선출되는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만약 이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가 추천된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히 보안관리를 하기 때문에 후임 선임에 관해 어떤 식으로도 들은 얘기는 없다"며 "사추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시작 6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국 140개 점포 및 익스프레스, 온라인쇼핑을 통해 추석 대표 선물세트 180여 종을 사전 예약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LG생건 '비욘드 8월 멤버십 데이'… 최대 50% 할인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비욘드가 이달 9일까지 최대 50% 할인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8월 멤버십 데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멤버십 데이는 비욘드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등급별 전 품목 10~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마스크 시트 '더 리얼 마스크'와 '제주 대나무 수딩젤'은 회원 등급과 관계 없이 50% 할인한다. 이 외에 '피토 아쿠아 워터 선 베이스' '리얼 미네랄 스킨 퍼펙트 쿠션' 등 자외선 차단제와 메이크업 제품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수정 기자 ksj0215@

롯데홈쇼핑,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

14일까지최대 60% 할인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은 7일부터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피와 가죽코트, 부츠 등 인기 겨울 상품들을 최대 60% 할인가에 판매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역시즌 특집 방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모피브랜드인 '진도' · '리가' 밍크코트를 100만원대부터 선보인다. '아카이브56 무스탕' · 롯데홈쇼핑 패션브랜드 조르쥬레쉬의 '소가죽 미니멀 롱부츠' 등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찌는듯한 폭염에 '샌들' 판매량 '껑충'

금강제화, 30% 할인 판매 등

폭염이 계속되면서 '샌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6일 금강제화에 따르면 4~7월 샌들 판매량은 17만8000켤레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000켤레에 비해 18% 증가했다.

특히 샌들은 매년 6월에 최다 판매량을 기록해왔지만 올해는 7월에 5만6000켤레가 판매돼 6월 판매량 5만3000켤레를 넘어섰다.

이 같은 샌들 판매 증가세는 예년보다 이른 4월부터 여름 더위가 시작된데다 7월초 장마가 짧게 지나가며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계속 되고있기 때문으로 금강제화 측은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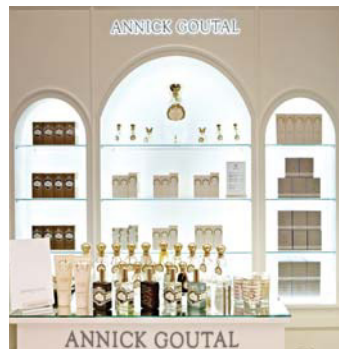
"물놀이 용품은 다이소에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모델들이 물놀이 가방, 여름용 슬리퍼 등 다양한 바캉스 용품과 물총, 비치볼, 튜브 등 다양한 물놀이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에 퍼지는 해외 향수

로드샵·쇼핑몰 매장 확대 반면 국내 브랜드는 '고전'

국내 향수 시장이 불황 속 '작은 사치'로 주목받으면서 급부상하고 있다. 작은 사치는 고가이지만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 제품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해외 브랜드도 잇따라 한국 시장을 찾고 있다.

지난 6월 향수 전문 수입 업체 킨타브는 독점 수입하는 이탈리아 니치 향수 '오디딸리'를 지난달부터 자사가 운영하는 향수 편집숍 '파퓨머리523'에서 판매하고 있다. 니치 향수는 소수의 고객들을 위해 만든 고급 향수를 말한다. 천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향수보다 가격이 비싸다. 이 업체는 오디딸리 외에도 '이스뜨와드파퓸' '로베르트 피게' '윈뉘어발리' 등 향수 브랜드의 국내 수입·유통을 맡고 있으며 연내 3개 브랜드를 더 들여올 계획이다.

킨타브 이태의 대표는 "향기 트렌드에 맞춰 국내 젊은 조향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퍼퓸숍을 만들어 전개하는 소규모 국내 향수 브랜드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명품 패션 브랜드로 유명한 토리버치도 지난해 말 '토리버치 뷰티'를 론칭, 대표 제품 '토리버치 오드퍼퓸'을 부티크 매장 25곳과 전국 29개 랩시리즈&ADF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오드퍼퓸은 출시 4주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면서 토리버치 뷰티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연말에는 신제품을 출시, 향수 제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닉구딸 코엑스점 단독매장.

백화점 위주로 전개해왔던 명품 향수들은 로드숍이나 쇼핑몰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조 말론 런던은 지난 5월 용산구 한남동에 국내 첫 플래그십 스토어인 한남 부티크를 열며 딥티크도 지난해 말 코엑스몰에 부티크를 오픈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향수 시장 규모는 423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 중 성공 사례는 드물다. 유독 향수 시장은 유럽 브랜드가 워낙 대중화 된 데다, 국내 화장품이 스킨케어 위주로 성장해 온 탓에 향수 시장에서는 해외 브랜드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국내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도 2011년 아닉구딸을 인수, 이듬해부터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손실을 봤다. 지난 1999년 자체 브랜드 롤리타 렘피카를 내놔 일부 제품이 두자릿 수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은 국내가 아닌 프랑스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 이는 향수 연구 기술뿐만 아니라 원료 수급 등에 있어 프랑스 현지 생산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LG생활건강도 지난 2012년 향수 브랜드 스티븐 스테파니와 코드온을 론칭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대신 오휘·더페이스샵 등 일부 브랜드에서 향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수는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이 역사가 오래됐고 기술력도 뛰어나다"며 "국내는 그동안 스킨케어 위주였기 때문에 향수 시장에서는 해외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metroseoul.co.kr

"핫식스와 청춘의 에너지를 느끼자"

롯데칠성 해운대서 이벤트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10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핫식스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해운대 중앙광장 내 별도로 마련한 '핫식스 존'에서 게임존·이벤트존·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일에는 핫식스가 후원하는 e스포츠인 '핫식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슈퍼리그' 개막전과 함께 명문 게임단 '팀엠브이피(TEAM MVP)'를 초청해 팬사인회 및 애장품 증정 이벤트도 연다.

티몬, 슈퍼마트 식품군 매출 1위 '생수'

소셜커머스 티몬(www.tmon.co.kr)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생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동기 대비 2.4배 늘었으며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슈퍼마트의 식품 카테고리에서도 매출 1위 품목이 생수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티몬의 생필품 최저가 '슈퍼마트'의 식품군 중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생수'로 전체의 20%에 달했다. 특히 '제주 삼다수'가 매출 및 판매 수량에 있어 1위를 기록했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디럭스'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의 설화수가 지난 3월 선보인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의 디럭스 버전을 6일 출시했다.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디럭스는 기존 제품에 리필 1개가 추가 구성된 스페셜 대용량 기획제품이다. 대표 호수인 'No. 21 미디엄 핑크'와 'No.23 미디엄 베이지' 두 가지로 8월부터 두 달간 설화수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청정원 '햇살담은 자연숙성 맛간장' 출시

대상(대표 명형섭) 청정원은 '햇살담은 자연숙성 맛간장' 2종을 6일 출시했다. 가격은 840ml 기준으로 각각 7300원이다.

국찌개용과 조림볶음용 중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자연숙성 맛간장 국찌개용'은 자연발효 양조간장에 게·새우·다시마 등 해산물과 양파·마늘·생강 등 국산 채소를 함께 달였다.

'자연숙성 맛간장 조림볶음용'도 자연발효 양조간장에 사과·배·매실 등 국산과일과 표고버섯·양파·마늘·소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함께 넣어 만들었다.

유통家 '광복 70주년' 마케팅 봇물

태극기 부착·이벤트 개최 등 업계, 내수 진작에 앞장서

유통업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며 내수 진작에 앞장선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에서 광복 맞이 각종 프로모션을 개최한다.

일부 기업들은 태극기를 부착해 애국심 고취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롯데물산은 12일 롯데월드타워 70층에 가로 36m, 세로 24m의 초대형 태극기를 부착키로 했다.

이번에 태극기가 부착되는 롯데월드타워 70층은 지상으로부터 약 304m 높이다. 가로 36m의 태극기를 펼친 넓이가 864㎡(약 262평)나 된다. 국내 최고 높이에 부착된 대태극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인 '나의 광복;엠블럼도 태극기 하단에 부착된다. 롯데월드몰 에비뉴엘관 정문 상단에도 정부 광복 70주년 엠블럼이 걸릴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전국 14개 점포 건물 외벽에 특별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14~16일 전국 11개 점포 문화홀 이벤트와 전 점포 키트까페를 무료로 운영한다. 아울러 이기간 동안 구매 고객에게 점포별로 선착순 1일 100명 한정으로 가정용 태극기를 증정한다.

전자랜드프라이스킹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한일 역사 유적지 탐방 '역사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달 말까지 전국 100여개 매장에서 800ℓ 이상 양문형 냉장고를 구매하는 고객 중 7명을 선정, 중국·한·일 역사유적지 탐방 여행을 보내준다.

편의점 CU는 전국 8700여개 매장 전면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업계 최초로 독도 후원기금이 적립되는 'CU 독도 후원 교통카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정은미 기자

CJ, 오뚜기 제치고 들기름 시장 1위

진출 3년 만에 점유율 33%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이 국내 들기름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오뚜기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6일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해까지 국내 들기름 시장에서 점유율 14.3%를 기록, 오뚜기(32.9%)와 사조(14.6%)에 이어 업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지난 1월 사조를 제친데 이어 3월에는 부동의 1위 오뚜기를 밀어내고 업계 1위에 올라섰다.

오뚜기가 국내 들기름 시장서 1위를 뺏긴 것은 처음이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33.3%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들기름 시장에서 1위에 안착한 모습이다.

/정은미 기자

물 만난 콘서트… 더위야 가라

안산문화재단 '2015 여르미오 페스티벌'

내일 안산문화광장서 개최
음악 공연·물놀이 체험 등
무더위 식힐 프로그램 다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규동)은 오는 8일 안산문화광장에서 2015 여르미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게 하는 음악 프로그램과 더불어 물놀이터 공간에서 색다른 체험거리가 펼쳐진다.

2004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중앙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매해 여름 풍성한 음악 공연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던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올해 '뜨겁게 즐기자'는 주제로 개최된다.

메인 무대로는 리쌍과 어반자카파가 출연한다. 리쌍은 개리와 길로 구성된 자타 공인 국내 최고의 콘서트 가수로 개성 넘치는 보이스와 풍부한 감성을 살려 실력파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는 팀이다. 또한 작사, 작곡부터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모두 직접 해내는 만능 뮤지션 어반자카파는 그루브와 소울의 느낌이 가미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를 선보인다.

경기도 안산시와 (재)안산문화재단은 8일 안산문화광장에서 '2015 여르미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안산시청 제공

특별히 올해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새롭게 안산문화광장에서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딱딱한 도심 속 광장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며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축제를 마련한다.

음악 공연이 시작되기 전 낮 시간에는 시민들을 위한 물놀이터 '아스팔트 비치'와 '다닥다닥 수영장'이 마련돼 도심 속에서 물놀이와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놀이를 통해 팥빙수를 먹을 수 있는 '달콤살벌 팥빙수' 이벤트 부스,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거리 노래방 '고성방가 노래방' 등의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음악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기도 다양성 영화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개봉작인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 초대형 스크린으로 야외 상영된다.

마음까지 시원해질 여름 놀이 프로그램과 더위를 날려버릴 리쌍, 어반자카파의 음악, 여름밤의 야외 영화 상영까지 모든 행사는 무료.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nsanart.com, 안산문화재단 축제사무국 031-481-0539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성신여대 218학군단. /성신여대 제공

성신여대, 2015년 최우수 학군단 영예

전국 110개 학군단 평가

성신여자대학교(심화진 총장)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주관하는 '2015 우수학군단 선발 평가'에서 전국 110개 학군단 중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성신여대 218 학군단은 지난 2011년 창설해 동계군사훈련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2014년 첫 임관식 이후 모두 59명의 여성 장교를 배출한 바 있다.

김성춘 학군단장은 "성신여대 학군단은 전장병이 일치단결해 현용전력 극대화와 미래전력 창출에 노력한 결과 인사·정보·작전·군수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관광公, 대만·홍콩 여행업계 대표단 초청

6~8일 관광교류 활성화 논의

한국관광공사는 6일부터 2박 3일간 대만, 홍콩지역의 여행업계를 대표하는 인사 37명을 초청한다. 이번에 방문하는 대표단은 현지 관광관련 협회장과 주요여행사 사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메르스로 관광객 감소세가 과거 '사스'를 경험했던 대만, 홍콩 시장에서 가장 큰 만큼 양 지역의 대표적인 24개 주요 여행사 사장단으로 구성된 이번 대표단 초청을 통해 해당 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대만·홍콩 시장을 조기에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홍콩 정부가 메르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해 발령했던 여행제한 경보를 해제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되어 이번 대표단 방한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대만·홍콩지역의 주요 여행사 사장단 이외에도 양 지역의 여행업협회 회장단도 동행해 상호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대표단은 청와대사랑채, 삼성리움미술관, 제2롯데월드 등 서울지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문한다. 이번 초청사업은 대한항공이 후원사로 참여했다.

관광공사 서영충 중국팀장은 "지난 7월말 200여명의 중화권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 초청에 이은 이번 대만·홍콩 관광업계 대표단 초청 행사는 현지 관광업계 유력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 대만·홍콩지역 방한시장 정상화에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2개월 이상 무월경·안면홍조… 갱년기 의심

닥터 Q&A

Q. 남녀 구분 없이 30대도 갱년기 겪을 수 있나?

나영철 원장
황금사과한의원 갱년기클리닉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병리학 전공)
前 안산대학교 물리치료과 외래교수
現 오행발효한약 연구소 소장
現 오행약침연구회 회장
現 대한실용한의학회 회장
現 안산 '사랑의학교(야학교)' 교장 (1995설립~현재)

면역질환 치료 부작용 발현
만성피로로 오인해 방치 땐
골다공증 등 2차 질환 유발

A. 갱년기라고 하면 흔히 40대 이상 여성들만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40대 후반부터 50대 중반 사이에 노화에 의해 여성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폐경과 함께 갱년기 증상을 겪게된다.

하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는다. 뿐만 아니라 갱년기와는 무관해 보이는 30대도 갱년기를 겪을 수 있다. 1000명 중 1명꼴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조기갱년기를 겪고 있는 30대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황금사과한의원에도 30대 후반의 조기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여성은 평소 월경이 불규칙한 편이었다. 최근 심한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다이어트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몇 달 동안 월경이 없었다. 검사결과 여성호르몬 수치가 매우 낮아져 있었다. 거기다 불안증과 얼굴 화끈거림, 온 몸에 열이 나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심장이 갑자기 급하게 뛰는 증상으로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이 여성이 겪고 있는 증상들은 갱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조기에 갱년기가 찾아오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특정질병을 앓은 적이 있거나 치료 과정 중의 부작용으로 갱년기가 빨리 찾아오는 경우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을 심하게 앓았거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난소가 손상을 입은 경우 조기 폐경이 나타나고 30대에도 갱년기를 겪을 수 있다.

질병이나 치료과정 중 부작용 외에도 선천적으로 염색체에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조기폐경과 갱년기를 겪는 젊은 여성도 있다. 이런 경우 위에 언급한 여성환자처럼 평소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 흡연 등을 가지고 있다면 폐경을 앞당기게 된다.

일반적으로 조기 폐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갱년기 증상을 단순히 만성피로나 월경 불순 정도로 오인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만약 월경량이 평소와 달리 비정상적이거나 3개월 이상 월경주기가 불규칙한 경우, 2개월 이상 무월경 상태로 열감이나 안면홍조 증상이 있다면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초기에 갱년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기면 일반적인 갱년기 증상은 물론 골다공증이나 심혈관계질환 등 2차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도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본 의원의 30대 조기갱년기 여성환자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

/정리=최치선 기자 chisunti@

이대목동병원 간호부, 봉사단 발대

'사랑나눔이' 45명 위촉

이대목동병원 간호부(간호부원장: 변은경)는 지난 4일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이화 간호 봉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변은경 간호부원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발대식에는 각 병동 간호과장들을 비롯해 봉사에 참여하는 '사랑나눔이' 45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전달받고 선서식을 진행했다.

'이화 간호애(愛) 사랑 더하기'라는 슬로건 아래 계절별로 테마를 정해 '이화와 함께하는 사계(四季)' 프로젝트를 봄부터 추진해 왔다.

간호부는 최근 봄 테마의 '사랑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간호사들이 매달 모은 봉사 기금 중 일부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여름에는 '사랑의 샘물'을 주제로 서울모자의 집 자원봉사와 함께 행사를 후원했다. 또한 가을에는 '사랑의 열매'(손과 발이 웃는 날 , 1004day 행사), 겨울에는 '사랑 나눔'(신생아 모자 뜨기, 아로마 향초 나누기)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화 간호 봉사 발대식'에서 병동 간호과장들을 비롯해 봉사에 참여하는 '사랑나눔이' 45명이 선서식을 하고 있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유해진과 호흡 맞춰

배우 **조윤희**가 영화 '키 오브 라이프'의 여자 주인공에 캐스팅됐다. 단역 배우와 킬러가 인생이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는 영화다. 조윤희는 극중에서 유해진이 연기하는 킬러를 돕는 인물을 맡았다.

홍상수 감독과 조우

배우 **김주혁**이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페르소나가 됐다.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6일 "김주혁이 홍상수 감독의 18번째 신작에 남자 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전했다. 신작의 제목과 내용, 캐릭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4일 데뷔합니다

신인 걸그룹 **에이프릴**이 오는 24일 데뷔한다. 젝스키스, 핑클, 카라, 레인보우 등을 배출한 DSP미디어가 새롭게 선보이는 걸그룹이다. 소민, 채원, 현주, 나은, 예나, 진솔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비 함께 한 신곡

배우 **양동근**이 새 디지털 싱글을 7일 정오 발표한다. 소속사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6일 "양동근이 약 1년 5개월여 만에 새로운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수 아이비가 피처링에 참여했다.

영화 내레이션 참여

배우 **박유천**이 내레이션에 참여한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피아노'가 오는 9월 개봉한다. '기적의 피아노'는 천재 피아니스트라 불렸지만 아직 피아노와 세상이 두려운 시각장애 소녀 예은이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주목 받는 1등 보다 편안한 2등이 좋죠

최덕문(46)은 연극 무대에서 뼈가 굵은 배우다. 서울예술대학 연극과를 졸업한 뒤 극단 차이무에 들어갔다. '지하철 1호선'을 시작으로 '하이라이프' '늘근도둑 이야기' 'B언소' 등에 출연해왔다. 1999년 영화 '박하사탕'에서 설경구(영호 역)에게 고문을 당하는 노동자 역을 맡았다. 이후 '나쁜 남자' '러브 토크' '푸른 소금' '화차' 등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쉼 없이 활동해왔다.

영화 '암살' 최덕문

연극무대서 뼈 굵은 베테랑 배우
작전투입 독립군 황덕삼 역 열연
처음 찍은 영화포스터 보고 감격
꾸준히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꿈

2012년에 출연한 '도둑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다. 극중에서 마카오의 카지노 지배인으로 출연한 최덕문은 배우 김수현과 뜻하지 않은 '썸'을 타는 역할로 존재감을 남겼다. 중국어로 된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소화해 중국인 배우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았다.

'도둑들'에서 최덕문의 연기를 유심히 지켜본 최동훈 감독은 신작 '암살'에서 다시 한 번 그를 캐스팅했다. 친일파 암살 작전에 투입되는 독립군 3인방 중 한 명인 황덕삼 역이었다. 최덕문도 다시 한 번 최동훈 감독과 만날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다.

"'도둑들'을 마친 뒤 감독님이 영화 제작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도둑들 영화를 만들다'의 내레이션을 제안하셨어요. 주인공이 10명이나 되는 영화인데 왜 저에게 내레이션을 시키는 건가 싶었죠. 다음 작품에 나를 부를 거라는 예감이 왔죠(웃음). 시나리오를 읽은 뒤에는 황덕삼의 우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암살'의 황덕삼은 '도둑들'의 카지노 지배인보다 비중이 더 큰 캐릭터다. 전지현, 조진웅과 함께 영화 속 중요한 사건을 함께 이끌어가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독립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별한 설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당시 상황을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려웠죠. 30대 초반의 사나이가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최대한 상상하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서는 진중함 속에 유머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신경 썼다. '추노'에 함께 출연해 아는 사이였던 조진웅과도 호흡이 척척 맞았다. 전지현과는 '도둑들'에서도 만난 적이 있지만 같이 연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긴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웃음). 영화처럼 '대장님'이 가장 적절했어요. 현장에서도 '대장님'이라고 부르면서 편하게 촬영했죠."

최덕문에게 '암살'은 의미가 큰 작품이다. 영화속 황덕삼의 강렬한 활약처럼 배우로서도 대중에게 강한 존재감을 남겼기 때문이다. 6일 동안 액션 신을 촬영한 것처럼 새로운 경험도 많았다. 처음으로 촬영한 영화 포스터도 잊지 못할 기억이다. 최덕문은 마을버스에 붙은 포스터 속 자신을 보고 놀란 사연을 전하며 "놀랍고 감격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다"고 웃었다.

무엇보다도 '암살'은 배우로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러나 최덕문은 "1등보다는 2등을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물론 주연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덕문이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는 스타가 아닌, 영화·드라마·연극에서 꾸준히 연기할 수 있는 배우로 대중 앞에 서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셰프 없는 '쿡방', 요리 예능에 도전장

올리브TV '비법' 13일부터 방영

전문 셰프 없이 아마추어 출연자로 구성된 요리 예능 '비법'이 유행처럼 번진 '쿡방'의 판도를 뒤집기 위한 출사표를 던진다.

올리브TV는 오는 13일부터 '한식대첩3'의 후속으로 13일부터 '비법'을 방영한다고 6일 제작발표회를 통해 밝혔다.

'비법'은 윤종신·김준현·김풍·정상훈·강남 등 평균 수준의 요리 실력을 가진 5명의 MC들이 요리 비법을 재현하는 '대국민 비법 검증쇼'다. 요리 비법 전수자가 매회 출연해 자신만의 숨은 레시피를 선보인다. 5명의 MC 중 한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전수 받은 레시피를 재현하게 된다. 완성된 요리는 시식과 평가 후 투표를 통해 '비법 전서'에 등재된다. 비법 전수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는 시청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비법' 김풍, 김준현, 윤종신, 정상훈, 강남(왼쪽부터) /올리브TV

개인의 사소한 요리법이 방송을 통해 '위대한 비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 재미 포인트다. 윤종신은 "비법 전수자가 알려준 레시피 그대로 요리를 하는 게 포인트다. 맛의 유무가 아니라 비법인지 아닌지를 판명한다. 과정이나 결과를 끌어내는 방식이 기존의 요리 예능과 전혀 다르다. 나처럼 칼 잡는 게 어색한 사람조차 레시피 그대로 하는데 맛이 나온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출은 맡은 서승한PD는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비법'은 13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40분 방송된다. /하희철 기자 hhc@

OFFICIAL SELECTION
FESTIVAL DE CANNES
제 68회 칸영화제 특별상
★★★★★
삶의 여정을
우아하게 탐구하는
걸작!
- CANNES
감동적이고 섬세한,
괴물 같은 작품!
- THE PLAYLIST
절묘한 유머와
드라마의 조합!
- HOLLYWOODREPORTER
일생에
한 번은 마주할
어느 날
나의 어머니
mia madre
〈아들의 방〉 난니 모레티 감독 작품
8월 20일,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2세이상관람가 수입·배급 (주)티캐스트 tcast cinecube

칼로도 잘라내지 못한 감정의 사슬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협녀, 칼의 기억

미술·세트 등 미장센 인상적 멜로에 방점… 배우 열연 빛나

'협녀, 칼의 기억'은 비운의 운명을 짊어진 세 남녀의 이야기다. 권력을 향한 탐욕에 사로잡힌 남자, 그런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여자, 그리고 이들에게 부모를 잃고 복수를 꿈꾸는 소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화는 무협의 세계와 멜로의 감성을 모두 담는다. 그 속에서 칼로도 잘라낼 수 없는 깊은 감정의 사슬을 그리고 있다.

영화는 홍이(김고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부모를 향한 복수를 꿈꾸며 무술 실력을 길러온 소녀다. 저잣거리에서 무술대회를 연 유백(이병헌)은 우연히 대회에 참가한 홍이의 무술 솜씨에서 18년 전 자신과 함께 했던 월소(전도연)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월소는 홍이에게 자신과 유백이 홍이의 부모를 죽인 자라는 진실을 털어놓는다. 홍이는 혼란에 빠지고, 유백은 홍이와 월소를 쫓는다.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미술, 소품, 세트 등 미장센에 신경 쓴 연출이 눈에 띈다. 노란 해바라기가 핀 초록 들판을 달려가는 홍이의 첫 등장, 붉은 빛의 의상으로 카리스마를 표출하는 유백, 그리고 순백의 옷으로 신비로움과 비밀스러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월소 등 의상에서도 캐릭터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무협 장르답게 액션 신도 다채롭다. 푸른 들판에서 펼쳐지는 월소와 검객들의 대결, 그리고 대나무 밭에서의 홍이의 훈련 모습은 무협영화에 기대할 만한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영화 후반부 세 인물이 만나면서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는 '협녀, 칼의 기억'의 백미다. 롱 테이크와 고속 촬영 등으로 우아함과 비장함을 동시에 느끼게 만든다.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무협 액션이다.

중요한 것은 영화의 방점이 무협이 아닌 '멜로'에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 말 무신시대를 배경으로 권력을 둘러싼 이야기처럼 보이던 영화는 유백과 월소의 과거, 그리고 홍이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절절한 멜로영화로 분위기가 바뀐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어공주' 등의 멜로영화로 박흥식 감독을 기억하고 있다면 영화 속 멜로의 감성이 반가울 것이다.

다만 영화는 시종일관 절절한 감정을 쌓는 것에만 집중한다. 무겁게 쌓이는 감정 때문에 영화의 후반부는 다소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든다. 세 배우의 연기는 흠잡을 곳이 거의 없다. 특히 이병헌이 보여주는 연기의 스펙트럼이 놀랍다. 15세 이상 관람가. 8월 13일 개봉.

TV 하이라이트

무대효과를 손에 넣어라

◆ MBC '무한도전'

토요일 오후 6시25분

'2015 무한도전 가요제'의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멤버들은 가요제에서 자신의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을 아이템을 쟁취하기 위한 게임을 한다. 불기둥, 폭죽, 꽃가루 등의 무대효과를 손에 넣기 위해 강한 승부욕을 보인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뮤지션들의 색다른 모습도 공개된다. 중간점검은 공연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막바지 준비에 돌입한 여섯 팀이 무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KBS2 '붉은 달'

금요일 오후 10시50분

드라마스페셜 2015 시즌 2 두 번째 이야기다. 사도세자 이선은 저승전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점점 광인이 되어간다. 영조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이선에게 불호령을 내린다.

◆ SBS '오 마이 베이비'

토요일 오후 5시

주안이는 블루베리 수확을 위해 농장을 찾는다. 직접 수확한 블루베리로 빙수, 잼, 효소 등을 만들던 중 엄마 김소현은 어렸을 때 했던 비석치기를 주안이에게 알려준다.

◆ MBC '세바퀴-친구찾기'

금요일 오후 10시

B1A4 멤버 바로는 호감도 조사에서 레이디제인을 이상형으로 꼽으면서 "오래 전부터 좋아했다."라고 깜짝 고백을 한다. 저돌적인 연하남의 등장에 홍진호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EBS1	JTBC
8일 (토)	12시 10 국악한마당 15시 15 한국인의 건강은 어떻게 변해 왔나 (재) 16시 10 징비록 (50회) (재) 17시 10 청년취업 프로젝트 내 일을 부탁해 19시 10 다큐 공감 20시 00 광복70년 국민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21시 40 광복70년 특집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23시 45 콘서트 7080	11시 30 나를 돌아봐 (3회) (재) 12시 50 개그 콘서트 (재) 14시 25 슈퍼맨이 돌아왔다 18시 05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9시 55 파랑새의 집 (49회) 21시 15 연예가 중계 22시 2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5회) 23시 30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12시 10 무한도전 스페셜 15시 45 쇼! 음악중심 17시 00 우리 결혼했어요 18시 20 무한도전 (440회) 20시 45 여자를 울려 (33회) 22시 00 여왕의 꽃 (43회) 23시 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0시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14시 30 런닝맨 (재) 15시 50 아빠를 부탁해 (재) 17시 00 오!마이 베이비 18시 25 놀라운대회 스타!킹 20시 45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13회) 23시 10 그것이 알고 싶다 24시 10 심야식당	12시 00 최고의 요리비결 (종합1~5) (재) <토니오의 이태리 미식여행> 15시 50 청춘! 세계도전기 (재) 17시 50 장학퀴즈 (965회) 18시 40 한국기행 (종합 1~2) (재) 20시 15 다문화 고부 열전 (재) 21시 0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종합1~3) (재) 22시 35 장수의 비밀 100회 (재) 23시 05 세계의 명화 <죽은 시인의 사회>	11시 45 냉장고를 부탁해 (38회) (재) 13시 20 라스트 (5회) (재) 14시 3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스페셜 (55회) 15시 50 냉장고를 부탁해 (38회) (재) 17시 10 JTBC 뉴스룸 50 2015 동아시안컵[여자] 20시 30 라스트 (6회) 21시 4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6회) 23시 00 라스트 (5회) (재)
9일 (일)	12시 10 전국노래자랑 13시 20 스카우트 2 (13회) 16시 10 여름방학 스페셜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시 40 동물의 왕국 18시 00 황금의 펜타곤 시즌3 (3회) 21시 40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22시 30 역사저널 그날 23시 20 취재파일 K	13시 15 청춘FC 헝그리 일레븐 (5회) (재) 14시 20 파랑새의 집 (재) 16시 50 해피선데이 (553회) 19시 55 파랑새의 집 (50회) 21시 15 개그 콘서트 (808회) 22시 55 다큐멘터리 3일 23시 55 어송포유 (4회) 0시 55 이웃집 찰스 (재)	12시 10 출발! 비디오 여행 13시 15 화정 (33·34회) (재) 15시 45 섹션 TV 연예통신 16시 50 일밤 <복면가왕/진짜 사나이> 20시 45 여자를 울려 (34회) 22시 00 여왕의 꽃 (44회) 23시 15 시사매거진 2580 0시 05 세바퀴 스페셜	12시 10 너를 사랑한 시간 (13회) (재) 13시 15 용팔이 (재) 15시 40 SBS 인기가요 16시 50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런닝맨> 20시 45 웃음을 찾는 사람들 22시 00 너를 사랑한 시간 (14회) 23시 10 광복 70주년 특집다큐 남북청년 통일실험	12시 30 극한 직업 (재) 13시 20 명의 (재) 14시 15 일요시네마 <미세스 다웃파이어> 16시 15 야옹멍멍 귀여워 45 세계의 눈 17시 35 세계 테마 기행 (종합1~4) (재) 20시 15 EBS 다큐 프라임 (종합1~3) (재) 23시 00 한국영화특선 <의형제>	13시 20 썰전 (127회) (재) 14시 40 비정상회담 (57회) (재) 16시 0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6회) (재) 17시 50 2015 동아시안컵[남자] 18시 30 김제동의 톡투유 (13회) (재) 20시 40 닥터의 승부 (187회) 21시 45 김제동의 톡투유 (14회) 23시 00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회)

이라크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 하루만에 도망

스포츠 주간 해프닝

이라크 새 대표팀 감독이 부임한 지 하루만에 도망을 가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2일(한국시간)부터 대표팀을 이끌 예정이었던 보스니아 출신의 자말 하지 감독은 갑작스럽게 이라크를 떠났다.

하지 감독은 이라크 축구협회와 계약에 구두 합의한 상태에서 이라크를 찾았다. 이날 정식 계약을 남겨놓고 있었다. 중동 지역에서 수년간 감독으로 활동한 하지 감독은 이라크를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면서 "새 감독을 맡게 돼 매우 행복하다"고 인터뷰도 했다.

이라크 축구협회 관계자는 "모든 게 일정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형식적인 사인과 기자회견만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도 매우 놀랐다"고 털어놨다. 이라크 축구협회는 하지 감독이 숙소인 바그다드의 한 호텔에서 묵는 동안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호텔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해 둔 상태다. 하지 감독에게 제공했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도 조사 중이다.

AFP는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라크 축구계에서 고질적인 부패와 뇌물 요구 등으로 하지 감독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말 하지 감독. /AFP 연합뉴스

카이저 찰리. /트위터

배트 보이의 비극

야구 경기 도중 9살짜리 배트 보이가 배트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비극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3일(한국시간) 아마추어 야구팀인 리버럴 비 제이스는 이날 배트 보이 카이저 찰리가 끝내 숨졌다고 발표했다.

사고 당일인 전날 리버럴 비 제이스는 미국 캔자스주 남부 위치타에서 샌디에이고 웨이브스를 상대로 전미야구회의(NBC) 월드시리즈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찰리가 앞선 타자가 삼진아웃을 당하자 그라운드에 떨어진 배트를 집어들고 대기타석 쪽으로 뛰어왔고 마침 그곳에서 몸을 풀던 한 선수가 휘두른 배트에 머리를 강타당했다고 전했다.

찰리는 헬멧을 쓰고 있었음에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응급조치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찰리는 대학생의 여름 리그인 NBC에 속한 리버럴 비 제이스에서 배트 보이로 뛰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 팀의 단장인 마이크 찰리는 숨진 소년의 친척으로 알려졌다.

리버럴 비 제이스는 소년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구단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소속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 중 SNS '나빠요'

경기 중 SNS를 사용해 논란이 된 롯데 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 이성민(24)이 끝내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롯데는 3일 이성민을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그는 전날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경기 중 사진을 공유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것으로 알려져 팬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이성민은 8-5로 앞선 8회말 2사 3루 상황에 등판해 김상현에게 3점포를, 김진곤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는 등 5피안타(1홈런) 1볼넷을 내주는 부진한 투구로 9-9 동점 상황을 만들었다. 롯데가 9-10으로 역전패하는 빌미가 됐기에 이성민의 SNS 사용이 더욱 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롯데 구단은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곧바로 이성민을 1군에서 제외했다. 다음날에는 이성민에 대한 구단 자체 징계를 검토했다.

지난 6월 미국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3루수 파블로 산도발(29)도 경기 도중 SNS에 접속해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가 출장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쑨양, 대회 3연패 달성

세계수영선수권

400·800m 2관왕 올라 1500m서 3관왕 노려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4·사진)이 남자 자유형 800m에서 세계선수권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쑨양은 6일(한국시간) 러시아 카잔의 카잔 아레나에서 열린 2015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7분39초96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7분40초81의 유럽 신기록을 세운 2위 그레고리오 팔트리니에리(이탈리아)를 0.85초 차로 제치고 짜릿한 역전 레이스를 펼쳤다. 동메달은 맥 호슨(호주·7분44초02)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쑨양은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부터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800m에서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01년 일본 후쿠오카 대회부터 정식 종목이 된 남자 자유형 800m에서 3연패는 쑨양이 처음이다. 2009년 이탈리아 로마 대회 때의 장린을 포함하면 중국은 세계대회 남자 자유형 800m에서 4회 연속 금메달을 가져가게 됐다.

쑨양은 자유형 400m에 이어 800m에서도 우승하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자유형 200m 은메달을 포함하면 이번 대회에서 쑨양이 거둔 메달은 3개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자유형 1500m에서도 우승하면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에 이어 세계대회 2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하게 된다.

쑨양은 경기 후 국제수영연맹(FINA) 홈페이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정말 이루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종목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따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희철 기자

메시, 상대 선수 박치기 '옐로카드'

6일(한국시간) 캄프 누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와 AS로마와의 친선경기에서 리오넬 메시(오른쪽)가 마푸 양가 음비아의 목을 잡고 화를 내고 있다. /AFP 연합뉴스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28)가 AS로마와의 친선경기에서 박치기를 했다.

메시는 6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프 누에서 열린 양 팀의 친선전에서 전반 35분 AS로마 수비수 마푸 양가 음비와와 시비가 붙었다.

네이마르가 AS로마의 페널티 지역에 있던 메시에게 공을 주는 순간 심판의 휘슬이 울렸다. 하지만 메시가 계속 돌파해 들어가자 음비와가 메시에게 뭔가를 말한 상황이었다.

메시는 음비와에게 다가가 박치기를 한 뒤 목을 잡았다. 심판과 동료 선수들이 와서 둘을 떼놓아야 했다.

퇴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경고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메시는 이날 전반 41분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바르셀로나는 3-0으로 승리했다. /하희철 기자

유럽축구 내일 개막, 해외파 활약 '주목'

기성용·이청용·손흥민 등 10명 출격 대기 중

유럽 프로축구가 8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시작으로 2015-2016 시즌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다. 이번 시즌 해외파 선수는 총 10명(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명, 챔피언십 1명, 독일 분데스리가 7명)이다.

기성용

이청용

가장 관심을 받는 선수는 지난 시즌 유럽 무대 진출 이래 최고의 활약을 펼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다. 선덜랜드 임대를 마치고 스완지시티로 복귀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역대 한 시즌 최다골(8골) 기록을 세우면서 팀의 올해의 선수로도 뽑혔다. 시즌 막판 무릎에서 뼛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후유증 없이 프리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청용의 활약도 관심거리다. 지난 2월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하면서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했다. 부상을 완전히 떨쳐버린 이청용은 최근 국제 친선대회에서 골을 넣는 등 점차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는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윤석영이 꾸준히 출전 중이다.

독일 무대에서는 단연 레버쿠젠의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된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1골,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을 포함해 총 17골을 넣었다.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구자철, 박주호(이상 마인츠), 김진수(호펜하임)도 꾸준하게 팀에 공헌하고 있다.

지난 시즌 12경기에 출전해 무득점에 그친 아우크스부르크의 지동원은 부활을 노린다. 같은 팀 중앙 수비수 홍정호는 시즌 후반 주전자리를 꿰찼다. 지난 시즌 브라운슈바이크로 임대됐다가 레버쿠젠으로 복귀한 류승우는 프리시즌에서 꾸준히 투입되며 활약을 예고했다. /하희철 기자

"Shin Dongbin, dominated the L investment company"

신동빈, L투자회사도 장악

The Lotte Group is currently in the midst of a succession dispute involving Chairman Dongbin Shin.

Chairman Shin formerly operated as the CEO of twelve separate Lotte Group L-investment companies based in Japan.

These twelve companies represent Lotte Group's stake in the hotel industry, and comprise 72.65% of Lotte Group's total holdings.

Chairman Shin's tenure as CEO over these L-investment companies certainly lends credence to his succession.

The main obstacle to Chairman Shin's ascension lies in an accusation that he prematurely assumed CEO authority from his predecessor Gyukho Shin.

If this claim is verified, the legitimacy of Chairman Shin's inauguration to CEO of Lotte Group will fall into question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Lotte Group succession will deepen.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신동빈 롯데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분쟁 와중에 일본 소재 12개 'L투자회사' 의 대표이사로 일제히 취임하는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지배하면 사실상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최근 신동빈 회장측이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기 과정에서 L투자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였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철회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이 취임 등기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4				3	6	9	5
	1			2			8	
				8		7		
		3	5			4		
6								9
		7			4	8		
		1		9				
	7			5			1	
2	6	9	8				7	

1		7	4				6	9
				1		5	2	
		9						4
	4		8			9		7
				6				
8		1			5		4	
9						2		
	8	5		3				
2	3				9	7		8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서 울고 계십니다 백중재일에 사찰을 찾아 공양하세요

작은 거인 여자 55년 7월 23일 6시

Q 엊그제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앞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눈앞에 보이지를 않아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찾다가 어느 움막 같은 집이 보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방안에서 슬피 울고 계셔서 나도 모르게 훌쩍거리며 울다가 꿈에서 깼는데 새벽 2시쯤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호흡을 하셨지만 제대로 모시지 않고 돌아가시게 한 것이 죄를 지은 것 같아 자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던 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A 울음은 억제된 관념의 분출 현상으로 괴롭고 슬픈 감정을 해소시켜 마음속에 불만이나 불안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울고나면 개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음이 슬픈 감정을 정화시켜 준다는 주장도 있고 눈물이 슬플 때 만들어지는 독소를 배출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물은 슬픔을 크게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소리를 내서 운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큽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울었다는 것은 어떤 소원이 이뤄지고 근심걱정이 해소되는 길함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성통곡을 하는 것과 훌쩍거리며 울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속 시원히 울지를 못 하였으니 귀하의 가정이나 직장에 불상사가 생기고 그 영향으로 자신의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암시합니다.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이뤄지게 해달라고 하여 나타납니다.
음력 7월 15일은 백중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양력 8월 28일입니다. 백종(百種), 중원(中元) 또는 망혼일(亡魂日)이라고도 하는데 백중재일에 사찰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부모나 조상이 돌아 가셨을 때 제대로 49재나 천도 재를 못 지내드려서 항상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을 때 함께 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젯밥을 비롯한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우란분(盂蘭盆)에 담고 향과 촛불을 켜서 시방의 승려들에게 공양합니다.
그리하여 수행하고 교화하는 승려들이 이 공양을 받으면 현재의 내 부모가 무병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은 고통에서 벗어나 끝없는 천상에서 복락을 누린다고 하였으니 백중재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7일 (음 6월 23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격입니다. **60년생** 큰 일을 꿈꾸지 말고 분수를 지키세요. **72년생**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84년생** 안정을 취하고 힘을 비축하세요.

49년생 건강을 각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61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73년생** 칭찬이나 용돈을 받습니다. **85년생** 찾고 있는 것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

50년생 하는 일마다 길하니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62년생**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74년생** 뜻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86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51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지 않는 운입니다. **63년생** 노력하지만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75년생** 재난과 수난을 겪게 되니 수심만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87년생**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52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4년생** 귀하의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76년생** 희망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88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53년생 새로 시작하는 사업, 일사천리로 풀립니다. **65년생** 자식에게 경사가 있습니다. **77년생** 인연이 없으니 잊는 것이 상책입니다. **89년생** 연수가게 되어 이상형 이성 만나게 됩니다.

54년생 하던 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운입니다. **66년생** 모든지 능동적으로 임하세요. **78년생** 매사 지치고 희망이 안보여 쉬고 싶습니다. **90년생** 싸움이 시작되면 폭행으로 번집니다.

55년생 동남간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67년생**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 **79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마세요. **91년생**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56년생 건강을 유의하세요. **68년생** 승진운이 매우 강합니다. **80년생** 외출을 삼가하세요. **92년생** 전화위복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7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69년생**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지병입니다. **81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습니다. **93년생**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8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70년생** 공로를 취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 칩니다. **82년생**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94년생**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59년생 가까운 이들이 떠나는구나. 기도하세요. **71년생** 매사에 조심하세요. **83년생** 두번, 세번 확인하세요. **95년생** 부정한 방법은 마음에 담아 두지 마세요.

KT 등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특혜 논란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정부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허가승인을 받은 방송사에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에 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을 0.5%로 정했기 때문이다.

경쟁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는 1.0~2.8%를, 위성방송사업자는 1.33%를 납부하고 있다.

SO 징수율의 최소치인 1.0%와 비교해도 절반밖에 안되는 징수율을 결정한 것에 대해 SO업계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IPTV의 상승세는 여전히 거침이 없는 반면 한때 케이블TV로 절대강자였던 SO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케이블TV방송 가입자는 1457만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1월과 비교하면 6만2000여명이 빠져나갔다.

반면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IPTV업계는 SO를 추월할 기세다. 경쟁사인 IPTV가 꾸준히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SO 입장에선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징수율에 억울할만도 하다.

따라서 IPTV 사업자는 지난 2008년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게 됐다. IPTV 3사는 2014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0.5%인 75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 IPTV 허가 이후 단 한 차례도 방발기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징수율을 0%로 결정해 특혜를 연장했다.

이는 가입자가 200만 수준인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납부한 7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IPTV에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SO의 경우 지난해 총 500억원을 웃도는 기금을 납부했다. 홈쇼핑사업자는 680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IPTV 천만 시대, 경제적 성과와 차세대 성장 비전'에 따르면 IPTV 시장규모는 2014년 1조4510억원이었다. 2017년엔 2조521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IPTV는 출범 6년 동안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으로 케이블 대체 없이 1000만 가입자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IPTV 성장전망과 현재 SO의 하락추세 등을 종합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비율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해외 직구 150 달러까지 면세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많이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징수율 구간을 세분화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투자 선봉장 삼성증권의 돌변

기자 수첩
김 보 배
<경제부 기자>

후강퉁으로 말미암아 고객들에게 중국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해온 삼성증권이 돌연 '투자 철회'를 주문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삼성증권의 극단적인 대처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삼성증권의 갈지자 행보가 증권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최근 각 영업점에 보유중인 후강퉁 주식 잔고를 모두 없애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중국은 성숙하지 않은 시장"이라며 "이러한 위험구간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고객 수익률을 보호한다는 게 그 이유지만 앞서 투자를 권고할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태도가 실소를 자아낸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11월 후강퉁이 시행된 후 공격적으로 중국 투자를 주도해왔다. 국내 후강퉁 거래에서 차지하는 삼성증권의 점유율은 60%를 웃돌며, 삼성증권의 보유주식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덕분에 지난 1분기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중개수수료로 102억원을 챙겼다. 지난해 4억원이던 중개수수료에서 25배나 성장한 수치다.

그야말로 후강퉁 중개영업의 최대 수혜를 입은 삼성증권은 이제 '중국 투자 비중 축소'를 권하고 있다. 윤 사장이 직접 고객을 찾아가 투자 비중을 줄이라고 부탁할 정도라니 이쯤 되면 투자자들은 정말 '팔아야 하나' 싶을 게다.

이러한 가운데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삼성증권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통한 적립식 투자'를 추천하며 "신흥국에 불과한 중국 주식을 마치 선진국처럼 투자하면서 '다 사라' 또는 '다 팔라'고 하는 매매 권유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사장도 "중국 증시 급락 사태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며 "증시 붕괴는 펀더멘털(기초체력)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신용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므로 지금이 바로 중국 주식을 사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으로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도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적잖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불과 두 달 전까지 "중국시장이 대단히 유망하다"던 윤 사장은 후강퉁 위탁매매를 중단하면서까지 태도를 갑자기 바꾼 모습에 적잖은 이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수 없다는 말)을 경영방침으로 내세운 그의 말도 덩달아 무색해진 꼴이다.

社說

노후를 위한 교육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4가지 국정과제를 천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과제 가운데 교육개혁이 들어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진단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힘겨운 노후생활과 출산율 저하의 저변에는 과도한 교육비가 놓여 있다. 한창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를 벌고 노후준비를 할 시기에 자녀 교육에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늙어서 근근이 살아가게 된다. 그나마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생은 그야말로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대한민국의 노후생활은 이토록 힘든 것이다.

더욱이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과중한 입시경쟁에 시달린다. 자녀교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성장하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만다. 그리고 이들 역시 자신들의 자식을 키우면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또다시 짊어지게 된다. 이렇듯 무거운 교육비 부담은 대물림된다.

더욱이 교육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면 평생 '하류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불안과 공포가 삶의 여정을 더욱 무겁게 한다. 이 때문에 결혼과 자녀양육에 대한 의욕을 스스로 상실한다. 그러니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무거운 부담과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교육비 경감을 비롯한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화급한 과제이다. 이해당사자와의 협상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과 달리 교육개혁은 정부가 스스로 시행하면 된다. 요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믿기 어렵다. 이를테면 그동안 절실하게 제기돼온 대학등록금 인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처럼 체감할 수 있는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월세 밀린 세입자가 사라졌다

생활 법률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4개월쯤 살고는 집을 나가 14개월째 소식이 없다. 게다가 월세는 2개월 이상 밀린 상태다.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고 싶어도 세입자의 짐이 그대로 방치돼있고 손을 댈 수도 없다. 하지만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치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명도소송을 하려면 우선 세입자에게 명도(건물을 비워 넘겨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정당하게 건물을 점유하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임대인은 무조건적으로 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거나 기타 임차권이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만 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고 있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명도소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는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명도청구소송을 하면 된다.

변수는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명도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확하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세입자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에 주민등록은 돼있지만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어 세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이것을 채무명의로 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면 된다. 강제집행신청을 하면 법원의 집달관이 세입자의 짐을 내어놓고 방을 비우는 절차를 취한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 마음대로 방을 사용할 수 있다.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낸 보증금이 있다면 월세는 거기에서 공제하게 될 것이고, 남는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홍원 기자 hong@

인사

■창원시
◇5급 전보 △공보관 김병석 △행정과장 황진용
■전북 김제시
◇5급(사무관) 승진 △정보통신과 김종배 △건설과 최창덕
■전북 부안군
◇5급 승진 예정자 △김원진(행정 6급) △이동근(〃) △이평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이용훈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박은애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교육연구부장 임수미
■소셜뉴스 위키트리
△전무이사 김광현
■인하대
△공학대학원장 황원섭 △교육대학원장 김영순 △정책대학원장 김진영
■건국대
△교학부총장 민상기 △대학원장 유재원 △정치대학장 권용수 △글로벌융합대학장 구남서 △교무처장 강황선 △학생복지처장 김종진 △글로컬캠퍼스 기획조정처장 김보경
■인천대
△일반대학원 교학행정팀장 김동호 △평생교육원 교학팀장 황재현 △대학건설본부 시설팀장 민금홍 △사무처 총무팀장 박춘수 △교무처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팀장 김산정 △연구산학처 취업경력개발원 취업역량개발팀장 박일충 △기획예산처 전략기획평가팀 TF팀장 조천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장 김형기 △감사팀장 임승빈 △대외교류처 대외협력홍보팀장 고덕봉

중국수출희망업체모집
한국상품 전용면세몰 제남보세구 면세몰입점 모집

제남보세구

면세 쇼핑몰 9월 12일 오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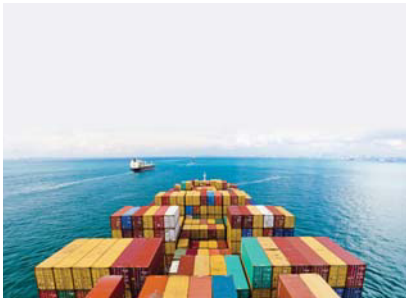
※ 본이미지는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물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남보세구 면세쇼핑몰에서 드리는 4가지 특권

1. 투자 및 수익성

- 저렴한 임대료
  ▶ 고정비 절감
- 한국관 관리업체 통합판매관리
  ▶ 직접 및 간접 경비 절감
- 통역 지원/ 관리지원으로 언어 문제 해결
  ▶ 간접비 절감

2. 경쟁력

- 인터넷 판매 :
  제작 및 운영비 전액 시정부 지원
- 소매(도매가능) 판매 :
  중국내 최저 수입가로 단가 경쟁력 확보
- 광고비 :
  RMB1,500만/년 정부지원

3. 통관

- 제남세관 투자사업으로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시간 단축
- 사전 통관절차 없이 창고 先출고 後신고 지원

4. 운송 및 재고

- 전문 포딩업체 (NEO GLS) 통합물류관리
  ▶ 운송비 최소화
- 전용기 활용 운송
  ▶ 운송시간 단축 ▶ 재고 최소화
- 보세창고 무료 이용으로 고정비 절감

NAVER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남보세구 면세점을 검색해주세요!

제남보세구 면세점 ▼ 검색

주소
济南市经十东路综合保税区港源二路755号

제남 국제공항 ▶ 제남 보세구 쇼핑몰

자가용 기준	거리	택시비
소요시간 19분	18km	51원 (약 9,000원)

문의전화
중국 : +86-531-8880-3865
한국 : 1566 -1298

| 사업설명회 신청방법

사업설명회(현장실사) 참가 신청서는 엠포털 홈페이지 mportal.org 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 02-6280-4470 또는 이메일 chn@mportal.org로 신청 바랍니다.

엠포털 홈페이지
www.mportal.org

주관기관 : 제남시정부, 제남세관, 제남일보 주관업체 山东晨世进出口贸易有限公司